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WTO 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무역의 현황과 증대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이 혼

2007년 2월
석사학위논문

WTO 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무역의 현황과 증대방안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이 혼

WTO 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무역의 현황과 증대방안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motion Plans of Farm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WTO

2007년 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이 혼

WTO 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무역의 현황과 증대방안

지도교수 이 정 호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年 10月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이 혼

목 차

ABSTRACT	3
제 1 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3
제 2절 연구 목적	4
제 3절 선행 연구 검토	4
1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구	5
2 중국에 대한 농산물 교역 관련 연구	6
3 중국 농산물 시장 조사	7
4 중국의 식품 소비 패턴 연구	8
제 2 장 한·중간의 농업협상에 관한 고찰	8
제 1 절 WTO/DDA 농업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장	9
1 협상의 지침(Guideline)	9
2 시장접근	10
3 국내보조	11
4 수출경쟁	11
5 개도국 우대조치 중국농업의 전망과 농업정책	12
6 새로운 이슈(New Issues)	12
제 2 절 농업협상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안	12
1 중국농업의 전망과 농업정책	15
2 중국의 WTO 제안서	17
3 한국과 중국의 입장 비교분석	23
4 한국과 중국의 WTO/DDA 농업협상 협력방안	25

제 3 장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현황	8
제 1 절 한국농업 개황	26
제 2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29
제 3 절 한·중간의 농산물무역	33
제 4 절 몇 가지 견해	40
제 4 장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마찰	24
제 1 절 마늘 SG 발동의 효과와 마늘분쟁 쟁점 분석	42
1 한국의 SG 발동 효과	43
2 한·중간 무역마찰의 쟁점분석	48
제 2 절 한·중간 교역관계 전망과 협력방안	48
1 한·중 농업부분 교류 협력 증진	49
2 한·중 2국간 무역마찰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질서있고 지속적인 교역관계 형성	49
제 5 장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증대방안	94
제 1 절 한·중 역내 농산물 교역 동향과 전망	53
제 2 절 한·중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파급 효과 비교	62
제 3 절 한·중 2국의 농산물 특화 실태	66
제 4 절 농업의 역내 분업 가능성과 전망	69
제 6 장 요약 및 결 론	70
참고문헌	75

표 목 차

<표 2-1> 중국과 한국의 농업생산자원 부존도 비교	20
<표 3-1> 대중국 무역비중 추이	31
<표 3-2> 대중 주요 농산물 수입 구조	34
<표 3-3> 대중 주요 농산물 수출 구조	39
<표 3-4> 한·중 교역현황	41
<표 4-1> 한국의 마늘 수입실적	42
<표 4-2> 한국과 일본의 SG 발동내용 비교	44
<표 4-3> 마늘의 국내생산 및 수입변동 추이	45
<표 4-4> 한·중 마늘협상의 기본 쟁점과 결과	46
<표 4-5>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수입단가 상승	47
<표 5-1> 한국의 동북아 역내 및 역외 농산물 교역 증가율 2000-2004	52
<표 5-2> 한·중 FTA 체결의 과급효과 계측 결과 비교	55
<표 5-3> 주요 농산물의 중국산 수입 비중과 수입 형태	59
<표 5-4> 품목별 대일 농산물 수출 유형과 향후 전망	62
<표 5-5> 한·중 농산물 무역수지기여도 (CTB)지수, 2004	66
<표 5-6> 한·중 2국 간 보완 및 경합 품목	68

ABSTRACT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motion Plans of Farm Products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WTO

Li Xin

Advisor : Prof. Lee Jeong-ho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China which was placed to the center of international economy at the time of globalization has executed economic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78 under the leadership of Deng Xiaoping from the impoverished and backward economic reconstruction due to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During the period, there was up and down in economy in executing its economic reform and opening, but at present China becomes the first economic country un the growing rate of economy by accomplishing economic growth of more than 7~8% a year.

Since China put its high target to the economic construction, it has reformed economic structure domestically and has kept open-door policy externally. China's reorganization of economic structure is that all the economy systems are changed to the most suit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rection is the invitation of market economy.

In view of this, this thesis aims at presenting a way of successful entry into China and offering the good information for the Korean enterprises in China and expecting companies.

Under the circumstance, the way of trade strategy and promotion are presented as follows : First, Korean enterprises should set up systems to cope with the market environment, the level of technology and market prices in China.

Second, Korea enterprises should expand R&D and use intellectual property. And further, they should strength the competitive power of intangible property and should center on the joint trade with those of China. With this, it is necessary for Korean enterprises to consider M&A for the invitation of foreign trade.

Third, with the pace of sudden trade circumstance and uncertainty, Korean enterprises should make thoroughly prior preparation and adaptability research to China for their successful trade, and securing good labor forces. Above all thi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GuanXi' for the broad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and formation of human relations.

Forth, Korean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for the new form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also make countermeasures. On the other side, Korean government should promote corelations with China through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the expansion of tour exchange. Besides, it is important for Chinese to understand Korea through the Korean Wave.

Since the China's entry into the WTO system, the foreign trade have increased and it is expected to make severe competition in China. Accordingly, it is also expected to make large trade of Korean enterprises to China. And so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 way to enter into China for the Win-Win relations rather than competitive relations.

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한국 농업·농촌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체 경제와 농업부문간 성장 격차 확대, 농가 교역조건의 악화 등으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증대하고 있다(농림부 2004). 이와 더불어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더욱 진행되어 농촌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DDA농업협상, 쌀 재협상,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추진 등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이 타결되면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한국 농업·농촌을 둘러싼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을 보면 약점과 위협적인 요인이 많아 패배주의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 치우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일본 및 중국 등에 대한 수출 증대 기회 요인을 찾을 필요도 있다. 즉, 높은 농업기술 수준 및 선진 농업경영체 등 한국 농업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강점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찾아 공격적인 농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세계 경제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재조명하여 한국 농업·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찾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IMF 2003; 김화섭 2003).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중국은 2002년까지 연평균 9.8%의 고도성장¹⁾을 이룩하면서 세계 6대 경제대국인 동시에 무역국의 자

1) 실제로 중국은 1980년대에는 연평균 10.1%, 1990년대에는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도국 평균 및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国务院发展研究中心 2000)。

리를 차지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03). 2003년 중국 국민의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넘어섰으며, 1980년 실질 구매력 면에서 세계 8위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다. (IMF 2003).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국은 2010년까지 경제규모를 2000년 대비 2배로, 다시 2020년까지 그의 2배로 증대시켜 13억 인구가 1인당 GDP 3,000달러에 달하는 샤오강(小康)²⁾사회를 건설할 목표로 경제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중국은 세계 3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구매력 면에서 중국의 GDP는 2020년 약 20조 달러에 이르러 미국,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Maddison 2001).³⁾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 농업 · 농촌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국농산물의 한국 농산물 시장 잠식정도가 확대되어 중국은 한국농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⁴⁾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농산물의 잠재적인 수출 시장으로서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⁵⁾

2) 원래 소강(小康)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수준을 의미하는데 이는 2003년 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제시된 야심적인 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고속 성장 지속, 사유재산 보호의 제도화, WTO 체제의 정비 및 시장개방의 확대, 인민폐 환율 변동의 최대한 유보, 동남아 등 주변국과 FTA 추진 등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였다. 2004년 3월초에 열린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부문간 성장 격차 확대 및 환경 파괴 등 고도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균형속의 안정성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수년간 연평균 경제성장의 목표를 7%로 낮춰 잡았다.

3) 물론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 지역 간 소득격차, 취약한 금융 시스템, 저평가된 위안화, 높은 실업률 등은 향후 중국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4) 2003년 한국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71억 4천만 달러였는데, 이중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이 23억 6천만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는 13억 1천만 달러를 수입하여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에 농축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 농축산물 수출은 13억 3천만 달러였는데, 수출 시장별로는 일본(4억 4천만 달러)이 1위이고 그다음이 미국(1억 6천만 달러), 중국에는 3위로서 1억 1천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따라서 2003년 중국에 대한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12억 달러에 달한다.

5) 이 점은 그동안 중국 농업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직 · 간접적으로 강조된 사항이기도 하다(김정호 등 2003; 어명근 등 2003; 이재욱 등 2002).

더욱 구체적으로 중국의 소비시장이 지역 간, 소득계층 간 격차가 매우 큰 점은 우리 농업에게 농산물 수출 확대라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베이징⁶⁾(北京), 상하이⁷⁾(上海), 톈진⁸⁾(天津), 쟁쑤(江苏) 및 푸젠⁹⁾(福建) 등 중국 동남부연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소득 수준은 기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을뿐더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철환 2004).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화, 서구화가 진전되어, 소비 패턴이 급속히 변하고 고급 농산물의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김정호 등 2003; 이재욱 등 2002; 최세균 등 2001).

더구나 중국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 2010년에는 상하이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적인 국제 행사는 중국의 내수 지각과 소비층 확대, 한류 등 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한국 경제는 물론 농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신선 또는 가공 형태의 고급 농산물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과 시장 개척활동을 구사하여 이들 고소득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은 일본 시장에 주로 의존하던 한국 농산물 수출의 새로운 활로인 동시에 농업 · 농촌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연구 목적

-
- 6) 베이징 : 중국 화베이 평원의 북부에 있는 도시. 중국 역대의 수도로 톈안먼 사적과 명승지가 많으며 철강, 기계, 직물, 식품 따위의 공업도 발달하였다. 중화인민 공화국의 수도이다.
 - 7) 상하이 : 중국 장쑤성 동부, 양쯔강 하구에 있는 도시. 중국 최대의 상공업 도시로, 중앙 정부 직할시이다. 난징 조약으로 개방한 무역항이며, 조선 · 철강 · 기계 · 화학 · 담배 · 방직 · 고무 · 제지 · 인쇄 · 식품 따위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 8) 톈진: 중국 허베이성에 있는 중앙 정부 직할시 . 화베이 수운의 중심지이며 대운하, 바이허강 포함류한다 .
 - 9) 푸젠: 중국 남동부에 있는 성. 대만 해협에 면하여 있으며,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장뇌 · 송향 · 차 · 사탕수수 · 밀이 나며, 예로부터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 남방 화교 출신지로 유명하다 . 성도는 푸저우.

이 연구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 농업·농촌에 미치는 기회요인을 발굴,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즉 첫째,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가 가능한가? 이와 연관된 질문으로서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소비성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고소득층의 그러한 소비성향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있는가? 둘째, 수출 유망품목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키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 3절 선행 연구 검토

이 연구를 위해 사전적으로 검토한 선행 연구 분야는 ①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연구, ② 한·중 농산물 교역 연구, ③ 중국의 농산물 시장 조사, ④ 중국 소비자의 식품 소비패턴 등이다.

1 중국의 WTO 가입 관련 연구

이재욱교수 등(2002)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품목별 수입관리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부 고품질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이 연구의 중요한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소비자의 기호 조사나 품목별 시장조사 등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김정호교수 등(2003)은 「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 연구에서 비록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농산물 유통구조 및 특성, 수입 농산물의 판매동향과 농산물 소비성향,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연구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김병률교수 등 (2001)은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 · 과수 · 화훼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에서 채소 · 과수 · 화훼의 중국에 대한 수출 확대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진들은 채소류의 중국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상하이, 베이징, 광주 등 대도시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호텔을 대상으로 방울토마토, 부로콜리, 셀러리 등의 고품질 농산물의 시장 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산 농산물의 고품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다양한 홍보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홍보 비용을 보조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화훼류 수출 증대전략으로서 화훼내수기반 강화, 품종보호와 개발 촉진, 해외생산기지 건설, 품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화, 중국 수출전담 물류기지 확보, 화훼 전시 · 판매장 설치를 제시하였다.

2. 한·중 교역 관련 연구

최세균 · 박기환(2001)은 "한 · 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가공식품 위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유통구조개선에 따라 과실류 등 신

선 농산물의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어명근 등(2003)은 「 동북아 농업구조와 역내농산물 교역구조 」 연구에서 한·중 2개국의 농업구조 및 교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중 중국의 농산물 소비분석 부분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중국인의 식품 소비 패턴이 곡물 중심에서 육류와 채소, 수산물 등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파악한 점은 이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2국간 농산물교역구조 분석에서 역내 농업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역내 국별, 품목별가공 정도에 따른 비교우위와 상대적 비용 및 품질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우호적인 입장에서 국별 분업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 역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목으로 파악된다.

최세균 등(2002)은 연산 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 한·중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농산물수입이 88%나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관한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긍정적인 면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3. 중국 농산물 시장 조사

그동안 한국 농산물의 중국 시장조사는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행하였다. 유통공사는 2003년에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다롄 등 대도시의 대형 유통매장 및 백화점에서 한국 식품의 구매 경험이 있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월평균 식품 소비액, 식품 구매 장소, 식품 구매시 고려사항, 정보획득원 등의 구매습관 및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는 이 연구에서 중국시장 조사 설계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통공사는 주요국의 농수산물 수입제도(2003)를 조사, 공포한

바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는 농수산물에 대한 최근의 중국 관세제도, 수입검사제도, 식품위생검역, 수입관리 및 규제제도 등이 망라되어 있어 이 연구에 유익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밖에도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발행한 주요 농산물의 해외특새시장여건(2002), 권역별 신상품 수출 여건 (2001), 중국 · 대만의 주요 품목별 수출 여건(2000), 해외시장속의 우리 가공식품 (1998), 수출전략품목 주요 시장수출 여건(1998a) 등도 이 연구 시발의 주춧돌이 되었다.

전창곤 등(2002)이 수행한 「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 역시 이 연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상하이시의 청과물 도소매 유통체계 분석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중국에는 지역별, 직업별로 다양한 소득계층이 존재하고,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성향을 충족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특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및 고품질 농산물의 중국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4. 중국의 식품 소비 패턴 연구

Chan 등(1997)은 소매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2005년까지 백화점 등 대형 소매유통점이 크게 확충되고 , 고소득층의 대형유통점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도시 고소득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점을 먼저 대상으로 해야 함을 암시한다. 베크(Veeck 2002)는 지난 20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농업의 효율증대, 수송 및 분배 체계의 개선 , 무역자유화 , 소매업의 사유화 등에 따라 도시지역의 식품유통 체계가 크게 변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선택의 폭이 넓어져 식품 구매시 갈등을 느끼는 것을 확인한바 있다. 또한

베크와 번스(Veeck and Burns 2003)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식품의 출현으로 중국 도시 소비자들이 전통적인 식품 소비 패턴을 바꾸는가를 연구한 결과, 소득 증가에 따라 조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베크(Veeck 2000)는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에서 식품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들은 중국 난징시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패턴을 조사한 결과, 소득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편의식품과 조리 간편식품의 구매빈도가 높을뿐더러 외식이 잦고 구매 회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내린 결론 중의 하나는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여 외국 기업은 대규모 홍보를 통한 가공식품 분야에 대한 진출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브라운 등(Brown et al. 2002)은 중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가내 도살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쇠고기가 소비되는 반면 소득이 높은 도시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점차 “녹색 육우”(green beef)와 같이 위생적으로 처리된 쇠고기를 선호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자오 등(Zhao et al. 2003)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개혁·개방 당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에 불과하던것이 36%로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세계화 및 도시경제의 성장 과정, 도시에로의 인구 집중 등을 현재 중국에서 대도시 발전의 주요원인으로 규명하면서, 특히 중국 경제의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대도시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을 제시함.¹⁰⁾

제 2 장 한·중간의 농업협상에 관한 고찰

제 1 절 WTO/DDA 농업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장

10) 권오복, 정정길,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pp.1-11.

한국은 2001년 1 월 WTO¹¹⁾농업협상에서의 기본입장을 담은 제안서를 농업위원회에 제출(G/AG/NG/W/98)

제안서에서는 농업협상 관한 전반적인 지침(Guideline)과 구체적인 쟁점으로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개도국 우대조치, 새롭게 대두된 문제(New Lssue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협상의 지침(Guideline)

WTO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다양한 농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국내보조 감축에는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생존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개도국 농업의 다원적기능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농촌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제한, 그리고 수출국영무역 등 수출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한편 UR 이후 급속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상업화와 무역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의 우려에 관한 문제도 협상에서 적절히 다루어져야 한다.

2. 시장접근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할 경우 각 회원국의 특수한 여건과 NTC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핵심 주곡(Key Staple Crops)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는 UR 협상에서의 최종 양허수준에 기초하여 최소

11)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지구

한의 폭과 점진적인 방식으로 감축한다.

다양한 형태의 관세제도 유지한다.

시장접근물량(TRQ)의 수입관리는 관세화에 따른 이중가격 형성과 수입차익의 발생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각 회원국은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에 따라 수입관리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보다 많은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WTO규정을 이용하여 수입관리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패가능 농산물이나 계절적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

기존의 특별긴급관세제도(SSG)는 관세화의 필수불가결한 보완조치였으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국내보조

농업개혁은 장기적인 이행과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며, 농업개혁을 일관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내보조의 분류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반영하기 위해 허용보조(Green Box)의 기준을 신축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회원국들의 상이한 농업여건과 개발단계에 상응하는 농업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생산과 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도 필요하다.

감축대상 농업보조(AMS)의 감축 시에는 인플레이션 반영 한다.

최소비용보조(de minimis)에 대한 현재의 허용기준 유지한다.

생산통제 조건부 직접지불(Blue Box)은 계속 존치한다.

현재 농업협정문상의 허용보조(Green Box)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보조는 허용되어야 한다.

1)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보상지불(Compensatory supports for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2)소득안정 제고를 위한 보조(Supports for enhancing income safety net)

3)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원 (Supports for small-scale family farm households)

4)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보조(Support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4. 수출경쟁

수출과 관련된 조치들은 농산물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출입국의 균형된 이익의 반영을 위해 이들 조치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출국들의 임의적인 수출제한 금지한다.

수출제한을 목적으로 한 수출세 부과 금지한다.

우회적인 수출보조의 가능성이 있는 수출국영무역의 관리는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한다.

5. 개도국 우대조치

개도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그리고 수출경쟁 등 모든 분야에서 우대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기능의 확보를 위해 핵심 주곡에 대한 관세감축에서 보다 큰 신축성 부여 한다.

국내보조의 경우 감축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농촌고용을 위한 허

용보조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개도국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출보조 감축에 대한 의무 완화한다.

6. 새로운 이슈(New Issues)

각 회원국 소비자의 식품안전과 질에 대한 관심,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인간과 환경에 초래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한 문제들은 WTO에서 적절히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적조치(Precautionary Measures)에 관한 문제도 협상에서 취급한다.

제 2 절 농업협상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협력 방안

1 . 중국농업의 전망과 농업정책

가. 중국농업의 전망과 문제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와 급속한 이탈농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WTO 가입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전망되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도시지역의 과밀화 현상이 동시에 발생한다.

농업인력의 노령화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업용수의 부족, 농업생산기반의 미비 등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이다.

중국이 WTO 가입함으로써 중국농업은 향후 상당한 변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가입이 중국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국 내 농업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공통적으로 WTO 가입에 따라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노동집약적 농산물(축산물, 과수, 채소 등)의 생산과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토지집약적 농산물(식량작물)의 경우에는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해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황계곤(2000년)은 WTO가입 이후 중국 농업을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 1)곡물 및 면화 생산 비중의 감소, 축산물과 원예작물의 생산은 증가 한다.
- 2)농업자원 재배분과 생산구조조정, 이농으로 인해 장기적 농민소득은 증가 한다.
- 3)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 후생은 증대한다.
- 4)우유, 양모를 제외한 돈육, 가금육 수출이 급증한다.
- 5)원예작물(채소, 과일, 화훼) 수출의 촉진, 그러나 실질적인 수출능력은 품질, 저장, 운송, 신선도 유지 등 기초시설 미비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 6)옥수수, 유지작물, 당료작물, 대두, 면화 등 경종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곡물수입은 증가하여 식량자급률이 하락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WTO가입 이후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수입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축산물, 원예작물 등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생산은 증가하지만 품질고급화와 생산기술의 문제로 인한 수출상의 제약으로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식량자급률의 하락과 전반적인 농산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로 인하여 식량안보와 농촌경제의 유지 등 농업의 다원적기능과 관련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품소비가 고급화함에 따라 농업의 환경적인 공익기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10차5개년 계획(2001-2005년) 중 농업정책의 목표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농정목표:

- 1) 농외소득 기회의 확대를 통한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한다.
- 2) 생태환경 보호의 강화한다.
- 3) 농업과학기술의 발전한다.

농업, 농촌 분야 계획의 실천방향 :

- 1) 인구증가와 식량소비 증가에 대비한 식량안보체계 구축 된다.
- 2) 농업의 구조조정 강화 한다.
- 3) 축산의 발전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한다.
- 4) 비교우위에 입각한 농산물 생산지역의 합리적 조정 된다.
- 5) 향진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혁신 추진 한다.
- 6) 시장수요에 따른 농산물 품질제도 유도 및 농산물 유통개혁 한다.
- 7) 농산물 수매보호 가격제도와 식량비축 및 위험기금제도 완비 한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과잉기조를 보이고 있는 곡물류의 생산을 축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원예작물, 축산물, 농산가공품 등의 생산은 확대하는 작목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작목전환 정책과 병행하여 전면적인 농산물 품질 제고, 축산업 발전의 강화, 특화농업지구의 배치, 농산물 가공업의 발전 강화, 농촌노동력의 취업구조 조정 노력 등도 병행 한다.

한편 중국은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 및 계층간의 소득격차 확대 등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대개발 전략을 수립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구조의 조정, 퇴경환립환초 ,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대규모의 환경 종합관리 등 농업생산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작량과 면화의 생산능력 제고, 특색 있는 농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 축산업 발전의 강화, 생태환경의 개선 등도 포함이다.

특히 절수형, 생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서부지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계획이다.

2. 중국의 WTO 제안서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최초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국의 제안서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 농업의 문제점들과 향후 전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제안서 서문

중국은 제안서 서문에서 신규가입국의 경우 국내보조의 추가적인 감축의무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수출보조는 실질적인 감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철폐한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시장개방의 폭과 범위에서 특별취급 한다.

협상결과는 회원국 모두의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해야 한다.

나. 수출경쟁

선진국의 경우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3년 이내에 철폐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우대의 일환으로 6년간의 이행기간 부여한다.

선진국이 수출보조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개도국의 대응조치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우회적인 수출보조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출신용은 1995/98년의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된다.

수출신용의 대상품목, 신용의 이자율, 용자의 조건 등에 대한 엄격한 규율 제정한다.

수출신용에 대한 통보 강화한다.

수출국영무역 제도는 계속 존치한다.

식량원조는 순수한 공여(grant)의 형태이어야 한다.

식량원조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다. 시장접근

관세는 일반적 접근방식과 품목특정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적용하여 감축한다.

이행기간 등에서 개도국우대 한다.

양허세율과 실행세율의 격차 축소, 고관세 및 누진관세 감축,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관세감축 한다.

관세는 종가세를 원칙으로 하되 비종가세의 적용 비중을 3% 이내로 제한한다.

WTO 신규가입국의 경우 가입협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관세인하를 양허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협상에서 합의되는 관세감축 의무에서 제외해야 한다.

관세쿼터제도(TRQ)는 유지되어야 하나 TRQ¹²⁾ 관리방식은 규제한다.

12) TRQ: tariff rate quota 할당관세

그러나 TRQ 배정방식의 선택은 자유로워야 한다.

수입국영무역 제도를 유지한다.

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긴급관세제도(SSG)는 폐지되어야 한다.

라. 국내보조

선진국의 AMS 상한은 해당 년도 전년의 총 농업생산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추가 감축한다.

감축대상보조 (Amber Box)와 생산제한 하의 직접지불(Blue Box)은 협상이 종료되고 초년도에 50%, 그리고 매년 25%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3년내에 철폐한다.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규정 강화한다.

소득보험과 소득안정화 정책(income safety-net programs)은 AMS에 산입한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보조에서 조건불리의 명확한 기준 마련한다.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허용수준을 인하한다.

개도국의 경우 식량안보의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자원부족 농민에 대한 지원 등에 우대조치 한다.

마.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s)

농업발전은 사회발전, 빈곤경감, 식량안보, 사회의 안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NTCs는 협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NTCs가 무역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3. 한국과 중국의 입장 비교분석

가. 양국 농업의 유사성과 차이점

1) 유사성

중국은 WTO 가입과 DDA농업협상의 타결로 국내시장이 크게 개방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수출이 증가하고 토지집약적인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분업과 전문화의 과정을 겪을 것이나 전반적으로는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환되어 한국과 같이 농산물 수입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봉착할 것이다.

농가소득의 감소와 이농, 탈농의 급속한 진행한다.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의 불안정화 한다.

급속한 구조조정의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농업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이농, 탈농이 촉진되어 농촌지역의 경제는 악화되는 반면 대도시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는 국가 전체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업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외소득증대가 필수적이거나 농촌지역의 고용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농외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일정 수준의 농업소득의 유지와 이를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보조는 필수적이다.

국내 농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의 구조조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은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급격한 이농, 탈농을 억제하고 농촌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이외에 농민들의 고용기회 창출과 생활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이후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국내생산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식량자급율은 하락하여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인구가 많은 대국이므로 중국의 해외 수입은 국제가격을 상승시켜 식량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Economic accessibility to food)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품소비 패턴이 고급화되면서 환경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농업의 부정적 환경효과와 더불어 농업부문의 급격한 축소로 인하여 경관보전, 도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홍수방지, 사막화 방지 등 농업의 긍정적 환경효과가 상실되고 있어 환경보전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생산전환의 속도가 늦어 농산물 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대한 기술과 하부구조가 미비한 상태이다.

2) 차이점

중국은 한국보다 인건비와 도지임차료가 저렴하여 전반적으로 농산물생산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가 노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국가이고, 한국에 비해 토지집약적인 농산물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1인당 경지면적이 한국에 비해 2.5배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가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한국의 절반수준인 것은 아직도 농촌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에서 농촌인구의 비중이 계속하여 감소할 경우 저렴한 인건비에

의한 노동집약적인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토지집약적인 식량작물의 경우 중국은 최적자급을 수준을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영농의 대규모화와 농업의 구조조정 작업이 한국보다 훨씬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 중국과 한국의 농업생산자원 부존도 비교

	총경지면적 (천ha)	인 구 (천 명)	1인당경지면적 (ha)	농가호당평균 경지면적(ha)
중 국	130.039	1.265.830	0.103	0.67
한 국	1.876	47.275	0.039	1.37

주 : 중국은 1996년 기준 , 한국은 2000년 기준
 자료 : 대한민국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년

중국은 한국이나 인접 무역상대국에 비해 과수, 원예, 채소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기술이나 자본력 등에서 저위의 수준에 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기술, 자본집약적인 농산물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 없이는 중국의 노동집약적인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에는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이럴 경우 토지집약적인 주요 곡물의 수입은 증가하여 국내 곡물가격이 하락하는 것에 더하여 생산이 전환된 고품질 농산물 역시 공급과잉이 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불원간 노동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에는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단기간 내에 기술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이 국제분업 원리에 따라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산물 생산에 전문화하고 수출을 증대한다는 차원에서 수출국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

나.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장 비교

1) 협상전반

한국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에서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감안한 다양한 농업의 공존,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개방과 농업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공격적으로 수출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도국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수출보조와 국내보조 감축에서 파격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2) 시장접근

중국은 이미 WTO 가입을 위한 미국, EU, 일본 등과의 양자협상에서 주요 농산물의 관세수준을 상당한 폭으로 감축하기로 합의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을 2004년까지 22%에서 17%의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국의 관심품목인 쇠고기, 오렌지, 포도, 유제품, 아몬드 등의 경우에는 평균관세율을 31%에서 14.5%까지 인하하기로 합의 한다.

한편 중국은 가공농산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누증관세(Tariff escalation)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관세화 품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밀 74%, 쌀 65%, 보리 65%, 옥수수 74% 등으로서 이들 품목이 고관세(Tariff peaks)를 형성하고 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중국의 한국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고관세 감축, 종량세의 증가세로의 전환, 특별긴급관세제도(SSG)의 폐지 등이다.

중국도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므로 종량세와 SSG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중국도 관세화 품목의 경우 고관세가 존재하므로 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 방식은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관세감축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과 품목특정적 접근 (product-specific approach)방식은 관세를 단순평균방식에 의해 신속적으로 감축하자는 한국의 입장과 유사하다.

TRQ 배정방식의 신속적인 허용 및 수입국영무역 유지도 양국간에 입장이 유사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시장접근 분야에서 수출국의 입장만을 견지하고 수입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제반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3) 국내보조

국내보조 의제에서도 중국은 감축대상보조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을 3년 내에 감축하자는 등 급진적인 보조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UR에서와 같이 AMS를 통한 점진적이고 신속적인 감축방식을 선호한다.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의 허용수준을 인하하자는 중국의 입장은 한국과 반대한다.

중국은 허용보조 (Green Box)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득보험과 소득안정화 정책(income safety-net programs)의 경우 AMS에 산입하여 감축하자는 주장은 한국이 소득안정 제고를 위한 보조 (Supports for enhancing income safety net)를 허용하자는 입장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중국은 개도국의 식량안보의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기회 확대, 자원부족농민에 대한 지원 등에 우대조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입장

과 유사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국내보조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개도국에게 우대조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수출경쟁

한국과 중국은 농산물 무역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는 수출보조는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출신용에 대한 엄격한 규율 제정에 관한 입장도 유사하다.

그러나 수출국영무역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한국과 반대이다.

수출경쟁에서도 중국은 농산물 수입국의 입장과 문제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식량수입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제한, 수출세 부과 등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자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의 경우 아무런 언급이 없다.

4. 한국과 중국의 WTO/DDA 농업협상 협력방안

중국의 농업은 WTO 가입과 DDA의 농업협상의 타결에 따라 농산물시장의 개방 폭은 확대되면서 농산물 교역체계 내에서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의 구조조정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집약적인 곡물 등의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원예, 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하게 되어 중국은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에 동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장과 관심사항은 한국과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농간의 소득격차 확대, 농촌경제의 악화와의

· 탈농, 농촌지역의 공동화, 영농규모의 영세성과 농업인력의 노령화 진행, 구조조정의 어려움 등 중국농업의 문제점들은 한국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특히 중국은 식량안보의 확보, 환경보전, 농촌개발과 농촌경제의 활성화 등 농업의 비교 역적 관심사항(NTCs), 또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확보가 농정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다.

농업의 다원적기능의 역할과 효과는 성격만 다를 뿐 선진국, 개도국 구별 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다.

WTO/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관 비교하여 관세와 국내보조, 수출보조 등이 더 큰 폭으로 감축되는 방향으로 타결되고 국내 농업보조에 관한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감축에서 관세상한이 설정되고 감축대상보조(AMS)가 큰 폭으로 감축될 경우 농업정책과 무역정책의 선택폭과 신축성은 크게 제약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산물 생산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수준에 그치는 허용보조(Green Box)은 선택가능한 국내농업 보호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NTCs는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대상보조의 신축적인 감축(UR방식으로 AMS 감축), 관세의 단순평균방식의 감축, 허용보조의 확대 등을 통해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 농업협정문과 같이 허용보조(Green Box)의 경우 선진국, 개도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DDA¹³⁾가 타결되면 허용보조 규정과 내용은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현행 WTO 농업협정문에서는 공공비축제도(Public stockholding)와 국내 식량원조(Domestic food aid)에 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13)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

그러나 식량안보는 국내생산, 해외수입, 재고관리 등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한 수단들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데 협정문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생산의 유지나 확충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핵심주곡에 대해 허용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생산에 최소한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한 직접지불은 허용되도록 협상연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농업협정문의 환경보전 직접지불은 생산방법이나 투입재 사용에 제약을 가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소득손실에 한하여 보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의 긍정적인 환경효과는 시장실패의 현상에 의해 과소생산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농민들의 의사결정에 내부화(internalization)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보조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 향후 계속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의 환경효과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환경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판단된다.

한편 현행 농업협정문에서 농촌개발과 농촌경제의 활력유지를 위한 보조로서 조간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이 허용되어 있으나, 이들 지원은 낙후지역에서의 농업생산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소득손실에 한정되어 있고 농촌고용이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한국과 중국은 공히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농촌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보조와 지원이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허용보조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역시 시장개방의 폭이 확대되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소득감소에 병행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농업도 점차 상업화가 더욱 진전되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영농규모가 대규모화될 경우 농업경영의 리스크가 함께 증가할 것이므로

농가소득 안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은 소득보험과 소득안정화 정책을 감축대상보조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어 중국 농업이 추세와 대조적이다.¹⁴⁾

제 3 장 한·중간의 농산물 무역현황

제 1 절 한국농업 개황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로 면적이 9.93만km²(중국의 절강성보다 조금 작음). 남북간 길이가 500km, 동서간 너비가 250km이다. 한국의 총인구수는 4.686만 명이며 그 중 2.160만(총인구의 46.1%)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471.5/km²이며, 이는 1970년의 328.8인/km²에 비해 43%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지형적 특징은 산지가 많고 평원이 적으며 해안선이 길고 굴곡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사계가 분명하고 기후가 따뜻하며 습윤하다.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170만ha로 국토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농경지의 64% 가량이 논이며 주로 벼농사를 한다. 밭과 기타토지가 36%가량을 차지하는데 채소, 과수 재배 및 방목용으로 사용된다. 1999년의 경우, 전국의 농업노동력은 248.4만으로 집계되었는데 전체인구의 10.6%에 해당한다. 농가호수는 약 150만 호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평균 1.3ha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며 항만이 많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세계적인 수산 대국이라 할 수 있다.

2000년의 한국의 GDP는 4572억 달러로 세계 제13위를 차지했고 인구 일인당 국민소득이 8910 달러이다. 1996년에 한국은 선진국 집단이라 불리는

14) 이재욱, 서진교 “ WTO/DDA농업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 및 상호 협력방안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2002.11, pp32-47.

OECD¹⁵⁾에 가입하였다. 1999년도의 한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2634억 달러로 세계 제13위를 기록했다.

한국농업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소규모 가정경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한국농업은 소농체제 하의 가정농업의 부류에 속한다. 농가 호당 평균 경지가 1.3ha이고, 전체 농가 중 80%가 경지면적 1.5ha 미만이다. 한국 농가의 경영방식은 중국과 비슷하다. 절반 이상의 농가가 벼농사를 위주로 한다. 1975년에 한국은 쌀 자급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현재 한국은 벼의 단위당 수확량이 세계에서 선두에 위치해 있는데, 1992년도 ha당 6.3톤이었다. 지금은 벼농사의 수입에 의지하는 농가는 해마다 감소하고 채소농가, 과수농가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공급이 부족하며 면화나 삼 같은 공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원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축산물을 보면 우유와 계란이 기본적으로 자급 확보가 되는 것 외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자급률은 모두 50% 미만이다. 1993년 말에 우루과이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세화와 쌀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제도는 한국 농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문가의 예측에 의하면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한국의 농산물 자급률 하락은 미국의 대량적인 원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46-1976년의 30년간 미국이 준 경제·군사 원조 총액이 127.4억 달러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480 공법을 통해 제공된 잉여농산물을 포함하며, 특히 식량과 면화가 포함된다.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의 대량 유입이 영세한 한국 농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설상가상의 형국이었다. 이와 동시에 수출제일 주위의 영향으로 국가는 국내시장을 경시하여 과도한 경제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외 농산품을 수입해서 비교적 낮은 국내 식량가격을 유지할 것만을 생각했다. 이로 인해 농업쇠퇴 국면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래

15)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의 소농경제는 마땅히 거두어야 할 개선의 효과를 얻지 못하여 농업은 공업화의 요구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였고 대량적인 농촌인구의 이농은 국내농업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01년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한국농가의 부채가 당해 연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년간 계속해서 8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 한국농가의 평균 부채는 2037.6만원(약 1.6만 달러)이나, 당년 총수입의 85.2%에 달한다. 이와 동시에 농가부채의 구조가 더욱 악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테면 생활비, 교육비 등 항목의 가계자금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에 비해 3.4%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 등 생산성 자금부채는 0.8% 증가에 불과하였다. 한국 통계청 농축산 통계과는 정부가 비록 농가부채 탕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쌀 등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여 부채 감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농촌인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 농업에 대하여 대규모 보조를 실시하였다. 그 보조금 총액은 2001년에 197.36억 달러에 달해 GDP 의 4.7%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농가소득 중 생산자 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 달했다 (1990-2000년). OECD는 한국의 이러한 농업보조정책을 강렬히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런 보조가 OECD 30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농가소득 중생산자가 받는 보조의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치의 두 배나 되기 때문이다. OECD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농업보조가 필연적으로 소비자, 납세자의 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한국정부는 보조 를 삭감하고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OECD는 또한 대다수 회원국이 전년에 비해 농산물에 대한 직접보조를 감축하였지만 한국은 쌀과 보리의 수매량을 줄인 동시에 수매가격을 높였다고 지적하였다. 농산물 가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러한 인위적인 지원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산물 가격을 국제가격보다 2.85배 높게 만들었으며 식품 소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노동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켰다.

제 2 절 한국의 농산물 무역

한국은 옛날부터 농사를 대단히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신토불이의 농업관념과 소비관념은 각 계층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역대 정부는 공히 농업을 국가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생명산업, 성장산업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오직 자주적인 힘에 의거하여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확보하여야만 나라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1)부단한 노력 끝에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에 한국이 개도국임을 명기하고 농업과 주요 농산물의 대외개방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하였으며, (2) 자국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쌀, 쇠고기, 채소, 과일, 수산물 등 주요 농산물의 자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련의 국내지원정책을 실행함으로써 WTO의 농산물 시장개방 추세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였으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한국정부는 자국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물 생산의 자급능력을 유지하였으며 외국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줄곧 제한조치를 취해왔다. 우루과이 협정의 요구대로 1995년 한국의 쌀 수입량은 기준년도(1986-1989년)의 국내 소비량의 1%에 불과하고, 집행기간이 완료되는 2004년에 가서는 4%로 증가된다. 한국이 승인한 쌀 수입 최저시장접근물량은 1995년에 51,307톤에서 점차 증가되어 2004년에는 205,228톤이 된다. 한국은 일정 수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04년까지 미루었다. 이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정부는 부득이 쌀 시장 개방문제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국 국내에서도 미래의 벼농사 관련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것이 큰 관심사로 되고 있다. 농민들은 정부가 우루과이 협정 중의 그린박스 우대정책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직접지불의 비율을 높일 것, 정부가 협상력을 제고시켜 뉴라운드 협상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하여 시장개방 요구에 더

잘 대처하고, 또한 개도국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2004년 WTO쌀 협상 준비를 잘하기 위해 한국농림부는 쌀산업 종합대책 제정발표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현재의 108.3만ha에서 95.3만ha로 줄인다. 즉 3년 내에 12%를 감축한다. 벼농사 보조금 제도를 수정하여, 주체적으로는 2003년부터 단위 농사에 적용하는 보조금(ha당 40-50만원)의 대상 벼 재배면적상한선을 지금의 2ha로부터 5ha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업농을 육성하고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충하며 동시에 쌀값을 시장상황에 부합되게 함으로써 쌀값을 하향 조정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은 농산물 수입 분야에서 일련의 강경한 관리조치를 취소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역이나 위생기준 등 여러 가지 비관세 조치를 이용해서 엄한 동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갖가지 검역기준, 위생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를테면 유전자 변형 가공식품 표시제도, 병충해 검역제도, 구제역 및 광우병 발생지역 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제한제도, 가금육 검역제도. 수산물 안전검역검사제도, 원산지 명기제도 등이다. 안전위생기준이란 주로 농약오염과 유해물질성분을 검사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한 한국의 통제는 매우 엄하다. <食品公典>에는 202가지 농약에 대한 잔류허가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도 농산물에 사용되는 호르몬, 항생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 식품첨가제표시, 과민성표시, 생산일자표시 등이 다 있어야 한다.

곡물수입 면에서 한국은 수입과정에 섞여온 잡초 종자에 대해서도 검역조치를 대폭 강화하였다. 한국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가 제정한 잡초가 섞여 들어온 곡물류 검역의 처리규정을 공포하여 이미 이 규정대로 실행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한 내용은 이전에 종자류에만 실시하던 잡초검역을 식용곡물과 사료를 포함한 수입곡물 전체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주로 한국의 생태환경과 농경지에 대한 외래 잡초의 악영향을 감

소시킴을 위해서이다.

한국 농산물 교역의 가장 중요한 대상국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필리핀 등 나라가 있다. 2001년 한국의 농, 축, 임, 수산물 수입액은 116.90억 달러였는데 그것이 당년 한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9%였다. 그 가운데서 농축산물이 83.83억 달러로 농림축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71.71%를 차지하고, 수산물이 16.48억 달러로 농림축수산물 전체 수입액의 14.10%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상품에는 곡물, 육류, 서류, 유류, 과일, 채소, 생화, 활어류, 냉동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최근 한국의 농산물 수입이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자급을 확보하고 보리는 일정량의 공급을 보장하였다. 그 외의 밀, 옥수수, 콩 같은 것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였다. 축산물 수입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하면 사과, 배 등 과일과 채소의 수출은 약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1991년부터 수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면은 순수입이 되었다. 한국의 수산물은 외화 획득에 큰 몫을 맡는데, 질 좋은 해수어(예를 들면 다랑어)의 수출을 대표적인 품목으로 들 수 있다. 1998년의 수출액이 17.8억 달러로 최고봉에 이르렀었는데 최근에는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12-13억 달러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은 또 국외에서 어류를 수입해서 가공하여(통조림, 어분, 훈제 따위)다시 수출한다. 어류의 수입액은 최근 5-6억 달러였다

< 표3-1 > 대중국 무역비중 추이

(단위:백만불,%)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총수출	對중국	비중	총수입	對중국	비중	총교역	對중국
1991	71,870	1,003	1.4	81,525	3,441	4.22	-9,655	-2,438
1992	76,632	2,654	3.46	81,775	3,725	4.56	-5,143	-1,071
1993	82,236	5,151	6.26	83,800	3,929	4.69	-1,564	1,222
1994	96,013	6,203	6.46	102,348	5,463	5.34	-6,335	740
1995	125,058	9,144	7.31	135,119	7,401	5.48	-10,061	1,743
1996	129,715	11,377	8.77	150,339	8,539	5.68	-20,624	2,838
1997	136,164	13,572	9.97	144,616	10,117	7.0	-8,452	3,455
1998	132,313	11,944	9.03	93,282	6,484	7.0	39,031	5,460
1999	143,685	13,685	9.52	119,752	8,867	7.4	23,933	4,818
2000	172,268	18,455	10.7	160,487	12,799	7.9	11,786	5656
2001	150,439	18,190	12.1	141,098	13,303	9.4	9,341	4,887
2002	162,471	23,754	14.6	152,126	17,400	11.4	10,344	6,354
2003	193,817	35,110	18.1	178,827	21,909	12.2	14,990	13,201
2004	253,844	49,763	19.6	224,463	29,584	13.2	29,381	20,178

*자료 : KOTIS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표 참고.

한국이 수입하는 과일의 주요 품목에는 바나나, 감귤, 포도와 각종 냉동과일, 그리고 파인애플, 망고, 야자 같은 열대과일이 있다. 2000년의 예를 들면 1-9월에 이상 네 가지 종류의 과일이 한국이 수입한 과일 총액의 89.1%를 차지했다. 한국에 과일을 수출하는 주요 나라와 지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바나나는 주로 필리핀과 에콰도르에서 수입한다. 2000년 1-9월말 간, 필리핀은 한국에 5949.8만 달러 어치의 바나나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기 한국의 바나나 수입총액의 96.5%에 해당한다. 한국은 필리핀으로부터 다른 열대 과일(파인애플, 망고, 야자 등)도 수입했는데 총액이 824.7만 달러, 전년 동기대비 12.1% 증가하였으며 동기 한국이 수입한 같은 종류 과실의 82.2%를 차지한다.

감귤은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온다. 2000년 1-9월 간, 미국은 한국에 1031.7만 달러 어치의 포도를 수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였는데

같은 시기 한국 포도 수입총액의 70.6%를 차지한다.

냉동과일은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온다. 1999년에 770만 달러 어치, 2000년 1-9월간에 648.8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이밖에 한국은 소량의 멜론(수박포함)과 앵두, 복숭아, 사과, 배 같은 신선 과실도 수입한다.

2002년 상반기 한국은 사과나 배등 과일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금액은 2884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하였다. 과일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은 동년 1월 대만¹⁶⁾이 WTO 가입한 후, 1997년부터 중단되었던 배, 사과 등의 대만 수출이 재개된 데 있다. 신선 과일의 수출액은 1559만 달러로 132% 증가하였다. 그중 배는 1104만 달러(362%증가), 사과는 316만 달러(75% 증가), 감 89만 달러(275% 증가)였다. 그리고 과일차나 전과 등 가공 과일제품 수출은 1324만 달러로 18% 증가하였다.

2000년 1-5월, 한국은 45803 톤의 닭고기를 수입하여 전년 동기대비 27.6% 증가하였다. 그중, 미국산이 34052톤으로 총수입량의 74.3%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동기 21084톤보다 61.5% 증가하였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철강무역 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미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결국 대량의 닭고기가 한국시장으로 밀려들어오게 된 데 있다. 동년 5월, 한국이 수입한 10753톤 닭고기 중에서 미국산이 7868톤(0.85달러/kg), 태국산이 259톤(1.56달러/kg), 캐나다산이 50톤(0.9달러/kg), 중국산이 240톤(1.45달러/kg)이었다. 2001년 11월, 한국이 중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선포했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가금육 수출은 여전히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제 3 절 한·중간의 농업무역

16) 대만: 아시아 동부, 중국 남동쪽 해안 밖에 있는 공화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의하여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국에 세워졌으나,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여 1949년에 본토를 떠나 이곳으로 옮겨 왔다. 지금의 영토는 대만 섬과 부근의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서부에 넓은 평야가 있다.

중국은 한국의 농·임·축·수산물 주요 수입대상국의 하나이다. 2001년, 중국의 대 한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은 18억 3,407만 달러로 대 한국 수출총액의 13.79%에 해당하며, 이는 미국(32.62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1995년 이래 중국 농림축수산물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차하는 비중이 1995년의 6.7%에서 2001년의 15.7%로 즉, 9%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미국 농산물의 대 한국 수출액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시기에 43%에서 28%로 15% 포인트나 감소하였다.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을, 만약 방직품이나 복장 등 가공정도가 비교적으로 높은 제품을 계간에 넣지 않는다면, 주로 식량, 두류, 채소, 수산물과 차이다. 최근에는 특히 수산물과 채소의 대 한국 수출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참조)

한국의 대형 식품가공기업들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갈수록 더 많이 중국산 농부산물을 사용한다. 그 원인은 한국 국내산 원료농산물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동류 제품조다 10배 내지 20배 높다. 한국의 가공 기업들은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할 때 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농부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국산원료만 사용하던 식품가공기업(포도주, 전통약주 생산기업 등)은 지금 대부분 중국산 원료를 구입한다. 한국의 제일제당기업이 생산하는 '쇠고기다시다'는 양파, 마늘을 포함한 대부분 원료는 중국산을 사용한다. 튀김용 밀가루와 속감용 밀가루 등 원료, 그리고 건마늘, 당근, 파, 연근, 마 등도 모두 중국에서 수입한다.

<표 3-2> 대중 주요 농산물 수입 구조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00		2001		2002		2003		2004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옥수수	659.9	옥수수	299.0	옥수수	635.6	옥수수	907.9	옥수수	238.8
2	합판	41.4	합판	44.3	합판	65.3	밀	94.8	합판	83.6
3	칩	39.0	밀	37.5	밀	58.5	합판	67.0	고추	63.1
4	쌀	37.0	기타 한약재	28.7	참깨	28.6	참깨	42.9	밀	57.8
5	기타 한약재	35.9	칩	28.0	기타 한약재	26.7	고추	39.4	기타과실	38.9
6	채종 콜자씨박	33.2	채종 콜자씨박	27.6	대두박	26.6	쌀	36.0	쌀	37.6
7	참깨	26.0	기타 소스제품	21.2	칩	24.8	기타 소스제 품	32.0	기타 소스제품	35.0
8	기타 제재목	22.5	기타 제재목	20.9	기타 소스제품	24.1	기타과 실	26.8	기타과실	31.5
9	기타채소	21.1	에틸알코 올	20.6	기타과실	23.9	기타과 실	26.0	김치	29.5
10	땅콩	21.0	당면	20.6	당면	22.9	기타 한약재	26.0	참깨	28.7
계 총액 (%)	937.0 1.458.1 (64.3)	548.4 1.216.8 (45.1)	937.0 1.799.8 (52.1)	1.298.0 2.230.9 (55.9)	644.5 1.799.1 (35.8)					

주:()속은 10대 품목이 대중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농림부 농림축수산물 수출입통계시스템

(<http://www.maf.go.kr/user.tdf?a>).

한국은 이밖에 도토리 가루, 메밀가루, 콩, 녹두도 중국에서 수입하여 가공한다. 미국산 콩은 유전자 변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많은 식품 기업이 수입 원산지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꿨다. 음료생산기업도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추음료, 배·사과 등 과일음료, 쌀이나 밤을 원료로 하는 곡물음료 등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원료가 중국 농산물이다. 한국 업계 인사들은 양국 간 농산물 가격차가 너무 커서 부득이하게 가까운 것을 포기하고 멀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중국 농산물의 대량 유입에 우려를 나타내며

본국 농민의 이익에 손실을 초래할 것을 걱정한다. 예를 들면, 마늘 수입 개방 후, 한국 마늘재배농가의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한국 농림부는 자국의 마늘농가에 대해 최저가격보상수매 등 대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미 마늘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조 8000억원을 투자해서 마늘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만일 2003년 후 중국 마늘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마늘 값이 폭락할 경우, 국가가 마늘농가에게 최저가격으로 사들인 후, 보상해주게 된다. 또 한국은 중국산 마늘에 대해 통관 전 세액심사제도를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원산지 구분 없이 통관전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주요 대상 농산물에는 탈수 녹두, 참깨, 들깨, 절인 땅콩, 탈수한 파, 생강, 콩, 양파, 메밀, 고구마 전분, 냉동 고추, 조미 오징어 등 12가지가 있다. 냉동 마늘과 토산마늘도 사회관심품목에 편입되었다.

현재 중국은 한국에 채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되어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가는 채소가 동기 한국이 수입하는 채소 총액 중 대개 85%이상을 차지한다. 2000년 1-9월의 예를 보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신선채소, 냉동채소 및 건조 채소는 각각 1380.2만 달러, 210.7만 달러 및 2312.5만 달러로 이는 동기간 한국의 전체 채소수입액의 89.2%, 54.3% 및 91.6%에 해당한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마늘을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1999년의 44.738톤이었으나 2001년에는 26.476톤으로 감소하였고 2002년 1-4월에는 5392톤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대 한국 채소수출에서 최대의 강점은 한국시장의 수요가 맞고, 가격 경쟁력이 강하며, 운송거리가 짧고, 위험이 작다는 점이다. 이런 우세는 중국의 대 한국 신선채소 수출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냉동 채소분야에서는 미국 등 구가와 지역의 제품이 최근 들어 중국 상품에 대해 차츰 경쟁 위협이 되고 있다.

대 한국 채소수출에서 중국이 당변한 주요 장애의 하나는 품질문제이다. 즉 일부 채소는 노약잔류량이 높고, 또는 한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흙 등이 묻어

있이 반포되거나 폐기처분을 당한다. 다른 하나의 장애는 한국이 장기간 중국 농산물은 품질이 낮고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중국산 채소 구매를 꺼려하여 중국산 채소의 대 한국 수출을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한국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의 식물병충해 관련 안전 검사와 평가에 통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여전히 정상루트를 통해 한국에 신선 과일을 수출할 수는 없다. 지금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주로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냉동과일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시장의 수요가 한정적이므로 금액도 비교적 적다. 1999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과일은 불과 670.3만 달러였으며 이는 동기 한국의 과일 수입총액의 4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냉동과일인데 같은 시기 한국이 수입한 냉동과일 총액의 86.9%를 점한다.

중국의 과일통조림도 일정량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채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송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신선한 과일을 수입하려는 수입상이 적지 않으므로 만약 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취득하고 아울러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면 중국 과일은 한국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수입수산물이 한국 수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점유율이 1996년에 16.0%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32.1%로 상승하였다. 줄곧 흑자만 기록하던 수산물 무역도 작년에는 3.74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으며, 2002년에는 1-4월 기간에 수산물 무역적자 규모가 이미 2.7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런 변화 중에서 중국 수산물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은 중국의 대 한국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가 되었다.

최근 중국은 한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활어양식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활어의 주요 고객은 원래 일본이었다. 그런데 근년에 일본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활어 수요량도 감소하였다. 결국 중국 양

식기업은 한국시장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국산 활어가 한국시장을 급속히 점령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해수양식활어 수입량은 1995년 5,573톤이던 것이 2001년에는 14,000톤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중국산 활어가 활어 총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11,500톤), 2002년 한국의 활어 수입량은 적어도 15,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활어양식은 본래 공급과잉이었는데 중국산 활어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가격이 계속 하락하게 되어 활어양식업은 안팎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어 이제는 품질로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내의 활어 유통 질서를 정돈하고 자국의 양식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수출하는 자라에 대해 40%의 조절관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효과가 미미하여 중국 자라 수입을 억제하려던 기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훼는 금액이 많지 않으며 주요 품종은 난 및 각종 화훼의 생절화이다. 1999년,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95.7만 달러 어치의 각종 생화를 수입하였는데 (전해 대비 204.8% 증가), 이는 이 기간 화훼수입 총액의 6.7%에 해당한다. 2000년 1-9월간에 중국으로부터 64.3만 달러 어치의 화훼를 수입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1.9%가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한국의 화훼수입총액의 5.8%에 해당한다.

중국이 한국에 화훼를 수출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 ① 한국의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고, 품종도 단일하여 한국에 화훼를 대량 수출하기는 매우 어렵다. ② 화훼재배 기술의 요구 수준이 높고, 그런데다 중국의 화훼생산은 경영관리 수준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 쿤밍(昆明) 지역에 투자하여 현지 농민에게 화훼재배를 위탁한 후 생산물을 한국에 반입하거나 동남아에 수출하려고 하였으나 화훼의 품질이 요구 수준에 도 달하지 못하여 결국 실패한 사례가 있다.

한국정부는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면 등 100%를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섬유원재료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하자는 한국 업계의

건의를 지지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쟁대상인 일본, 대만 및 EU가 이미 무관세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업계도 상술한 수입 원재료의 무관세를 실시하여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면화가공품을 제외하고는 모두수량이 많지 않다. 게다가 한국이 제동하는 상품은 결코 자국이 비교우위를 구비한 농산물이 아니고 수입원료를 가공해서 생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표 3참조). 유념할 점은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의 계기를 활용하여 자국 수산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중국시장 진출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수산물기업들은 올해 9월 상해에서 개최된 식품박람회에서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총 571.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45% 증가한 것이다. 한국기업은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 한국수산물 특별판매전을 열어 현장에서 즉석가공해서 시식토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국수산물을 홍보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한국 수산물 중에서 참치 통조림, 굴통조림, 맛김, 조미 오징어 등 가공식품은 중국인의 구미에 맞아 고객의 환영을 받았다.

<표 3-3> 대중 주요 농산물 수출 구조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2000		2001		2002		2003		2004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합관	40.4	합관	20.3	자당	21.1	자당	24.0	자당	29.8
2	지당	12.0	자당	19.7	합관	12.0	밤	21.6	밤	21.3
3	섬유관	6.8	알코올성 조제품	5.9	밤	8.9	합관	15.3	합관	20.9
4	알코올성 조제품	5.3	섬유관	4.2	커피 조제품	8.2	라면	12.9	비스킷	11.7
5	채소종자	3.0	밤	3.1	혼합 조미료	6.5	난초	9.6	라면	11.3
6	밀	2.8	라면	2.9	위스키	4.4	커피 조제품	6.5	커피 조제품	11.0

7	기타 베이커리	2.5	홍삼	2.5	알코올 성 조제품	4.2	기타 베이커리	3.6	권련	10.2
8	홍삼	2.5	밀	2.3	기타 베이커리	3.8	검	3.6	난초	7.4
9	라면	2.2	로열젤리	2.2	난초	3.3	권련	3.6	섬유판	6.5
10	쇼트닝	2.0	채소종자	2.2	라면	3.3	혼합 조미료	3.4	홍삼	5.0
계	79.5		65.3		75.7		104.1		135.1	
총액	118.2		109.5		131.3		168.4		217.6	
(%)	(67.3)		(59.6)		(57.7)		(61.8)		(62.1)	

주:()속은 10대 품목이 대중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농림부 농림축수산물 수출입통계시스템

(<http://www.maf.go.kr/user.tdf?a>)

제 4 절 몇 가지 견해

한·중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소비습관도 서로 비슷하고 농업생산 면에서도 비교적 강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어 무역 형세는 전반적으로 보아 비교적 괜찮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자국의 농산물 생산을 보호하고 수입농산물의 경쟁을 알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반드시 수출품의 품질제고와 브랜드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는 한국시장 진출에 필요할 뿐 아니라 중국농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데도 필요하다.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1)대중 농산물 : 중국의 곡물류, 유지류 제품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조지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비해 비교우위는 없지만,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고 생물자원이 다양성 특징을 갖추고 있으므로 잡곡과 특색농산물은 한국에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사료수입도 이후 적정 수준 증가 (그러나 증

가속도는 다소 완만) 할 것이므로 중국의 동북지구는 한국시장 개척에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2) 신선하고 살아있는 (鲜活) 농산물 : 이 부문에서 중국은 천연적인 우위를 갖추고 있는데, 채소는 이미 거대한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과일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증가하려면 특히 제품의 품질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만 기술성 장벽을 타파할 수 있다.

3) 수산물과 축산물 : 수산물은 중국의 대 한국 수출에서 마땅히 중점 품목이 되어야 한다. 관건은 신뢰성과 능력을 겸비한 기업이 있어 안정적인 상품 공급 루트를 구축하고 상품원을 잘 조직하여야 한다. 한국이 수입 쿼터를 취소한 후 한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육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과 대 한국 수출 확대 경쟁을 해야하므로 반드시 품질기준을 높여야 한다.

이밖에 신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식품가공산업은 다음 단계에서 중국의 발전의 중점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 소비자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에서 판매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한다면, 중국의 잠재력은 결코 작지 않다.¹⁷⁾

한국은 2004년도에 중국으로부터 201.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중국통계로는 342.5억달러)를 기록한다.

- 이처럼 한국통계와 중국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중국통 에는 홍콩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다시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3년부터 우리의 제1위 수출대상국이며, '02년부터 제 위의 투자대상국이다(투자누계로는 미국다음으로 2위이다).

17) 歷爲民, “ 한 · 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 현황과 전망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2002.11, pp.158-171.

<표3-4> 한·중 교역현황

(단위 : 억불, %)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통계	총 계	184.2 (-22.2)	225.5 (21.1)	312.5 (38.6)	314.9 (0.8)	411.5 (30.7)	570.2 (38.5)	793.5 (39.2)
	對中수출	119.4 (-12.0)	136.8 (14.6)	184.5 (34.9)	181.9 (-1.4)	237.5 (30.6)	351.1 (47.8)	497.6 (41.8)
	對中수입	64.8 (-35.9)	88.7 (36.8)	128.0 (44.3)	133.0 (3.9)	174.0 (30.8)	219.1 (25.9)	295.8 (35.0)
	무역수지	54.6	48.2	56.5	48.9	63.5	132.0	201.8
중국 통계	총 계	212.5 (-11.6)	250.5 (17.9)	345.0 (37.7)	359.1 (4.1)	440.9 (22.8)	632.7 (43.5)	899.7 (42.2)
	對韓수출	62.3 (-31.7)	78.2 (25.4)	112.9 (44.4)	125.4 (11.1)	155.1 (23.6)	201.1 ① (29.6)	278.1 (38.3)
	對韓수입	150.2 (0.6)	172.3 (14.7)	232.1 (34.7)	233.9 (0.8)	285.8 (22.2)	431.6 (51.0)	621.6 (44.0)
	무역수지	-87.9	-94.1	-119.2	-108.7	-130.7	-230.5	-342.5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표

제 4 장 한·중 간의 농산물무역마찰

제 1 절 마늘 SG 발동의 효과와 마늘분쟁 쟁점 분석

1 한국의 SG 발동 효과

마늘 SG 발동으로 한국의 마늘 수입량은 1999년 44.704톤에서 2000년 23.234톤, 2001년 26.476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 · 냉장마늘 수입량은 1999년 14.355톤에서 2000년 320톤, 2001년 12.618톤으로 감소하였으며, 건조마늘은 2000년 14.727톤, 2001년 131톤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냉동 · 초산조제마늘은 관세율할당 (TRQ) 물량의 수입으로 2000년 8.187톤, 2001년 13.727톤으로 증가하였다.

마늘의 국내 소비량 중 수입산 마늘의 점유율은 연산기준으로 1996년에

3.3%에서 1998년에 12.3%로 높아졌으나,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6.3%로 낮아졌다.

<표4-1> 한국의 마늘 수입실적

(단위: 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MMA 기준 물량	8.680	9.323	9.966	10.609	11.252	11.895	12.538	13.181
TRQ물량						20.105	21.190	22.267
신선·냉장마늘	7.688	6.153	12.939	25.633	14.355	320	12.618	
냉동마늘	3.851	2.554	4.710	9.744	23.247	4.769	9.790	6.010
초산조제마늘	618	1.126	2.042	2.684	4.539	3.418	3.937	1.614
건조마늘	40	1.600	192	1.685	2.563	14.727	131	122
계	12.198	11.434	19.884	39.747	44.704	23.234	26.476	7.746

주 : 1. 2002년은 6월까지의 실적임.

2. 냉동·초산조제마늘과 건조마늘은 신선마늘로 환산한 물량임.

2. 한·중간 무역마찰의 쟁점 분석

① 한국과 일본의 SG 발동과 중국의 무역보복 비교

한국의 마늘 SG 발동 - 중국의 무역보복 - 한국의 추가 관세할당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일본의 대중국 SG 잠정조치 발동 - 중국의 보복조치 - 일본의 SG 잠정조치 철회 과정으로 이어져 최근의 한·중·일 3국간 농산물 무역마찰은 중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긴 하였다.

그러나 금후 중국산 농산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무역마찰의 강도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2000년 한국의 마늘 SG 발동에 대응해 공산품을 수입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한 바 있는데, 이에 이어 중국은 6월경 일본에 대해서도 수입

이 급증하는 일본산 자동차, 휴대폰, 에어컨에 대해 100% 특별관세를 부과하였다.

중국의 일본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일본은 중국과 본조치 시행 시한을 넘기는 수차례의 양자간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01. 12. 21일 일본의 양보로 무역분쟁이 해결되었다.

일·중 양자 협의 결과, 양국은 대상 농산물의 과잉수출을 억제하는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SG 본조치 발동을 포기하고 이에 중국은 무역보복관세를 해제하였다.

일본과 한국의 SG 발동과 중국의 무역보복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차이점으로 한국은 SG 본조치 이후에 무역보복을 받았고 일본은 잠정 조치기간 동안 무역보복을 받게 되어 보복조치 내용이 한국은 수입중단, 일본은 특별관세 부과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중국의 보복조치가 당해 산업이 아닌 전산업에서 선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보복받은 업종이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시장 확대 잠재력이 매우 큰 업종으로 보복으로 인한 타격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둘째, 보복의 강도가 SG조치로 중국에 피해를 주는 정도와 비교다 안될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한국과 일본은 모두 중국에 양보를 함으로써 SG 발동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이다. 즉 한국은 관세율할당이 설정됨으로써 기존의 수입 수준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일본은 잠정조치를 해제하여 기존의 상태로 원상복귀 되었다는 점이다.

<표4-2> 한국과 일본의 SG 발동내용 비교

	공 통 점	차이점	
		일 본	한 국
SG발동	수입품 중국비중 100%	TRQ방식으로 기존 교역수준 인정	냉동, 초산조제 마늘 전체에 긴급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조치	-보복대상이 수입급증 품목으로 잠재적 타격 큼 -보복대상품목의 수입액 유사(5억달러 수준)	-잠정조치후 보복 -100% 특별관세(자동차, 휴대폰, 에어컨)	-본조치후 보복 -수입금지(휴대폰, 폴리에틸렌)
결과	중국입장 강경	-수출협의회 설치 합의 -일본의 SG본초지 해제 -중국의 보복조치 철회	-본조치 계속되나 기간 단축 -마늘 수입쿼터 2만톤 의무수입 추가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 정정길 2002.11 p128 참조

② 한국 마늘농가의 피해 원인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해 한국의 마늘농가들이 가격하락, 소득감소의 피해를 받았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 중국은 1999년 국내생산량이 9만톤 늘었기 때문에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는 무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산 마늘 수입은 조사대상기간인 1996-99년 사이에 4배 이상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생산량은 45만톤에서 48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이 최근 1년간의 생산량 수치만을 이용하여 긴급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표4-3> 마늘의 국내생산 및 수입변동 추이

구 분	1996	1997	증가량	1998	증가량	1999	증가량
국내생산량	455.955	393.834	13.6	393.903	0.0	483.778	22.8
중국산 수입량	9.497	18.389	93.6	22.094	95.7	28.330	28.2

주 1)1998.1-9까지 수입실적이며, 1998년 총수입량은 35.996톤임.

2)1999.1-9까지 수입실적이며, 1999년 총수입량은 37.252톤임.

또한 중국은 한국의 마늘수입이 1999년에 전년대비 3.5%증가(1.200톤)에 그쳤기 때문에 국내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조사는 1999.9월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1월에는 SG 잠정조치가 시행되어 수입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입증가 추세는 1999년 1년간의 수입량이 아니라 1999년 1-9월 까지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리적이다.

이 방식을 따를 경우 1999.1 -9월까지 수입증가율은 30%에 육박하고 국내생산 증가율 23%를 능가하게 되어 수입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또한 한국의 마늘수입액이 800만불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국내 통계에 의하면 1,500만불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더욱이 산업피해구제조치 발동의 판단기준은 수입액의 과다가 아니라 수입증가에 따른 증가피해 규모이다. 산업피해를 조사한 무역위원회는 마늘의 수입증가에 따른 농가피해를 3,500억원이며 이는 마늘 총생산액의 30%이상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③ TRQ 물량 미소진 원인

중국은 2차 무역보복시 한국의 마늘 TRQ 물량 미수입에 대해 민간수 입을 주장하던 당초 협상내용과 달리 한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표4-4> 한·중 마늘협상의 기본 쟁점과 결과

항 목	중 국 측	우 리 측	협 상 결 과
MMA	전량수입	전량수입	전량수입
TRQ물량	24천톤	20천톤	20천톤+년차별 증량
수입방법	TRQ는 민간자율	국영무역	MMA : 국영무역 TRQ : 민간자율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정정길 2002.11 p130 참조

그러나 TRQ 물량이 한국에 전량 수입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마늘협상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마늘쿼타에 대해 최저가격 제(FOB 630달러/톤)를 도입하고, 수출허가증 수수료(수출쿼타비)도 톤 당 73-100달러로 다른 국가내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부과하는 쿼타비 48달러내 비해 2배를 더 받음으로써 중국산 마늘의 수입단가가 2배로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마늘과 국산마늘의 가격차가 축소되어 수입업자들의 중국산 냉동마늘 수입 메리트가 없어졌다. 2000년 전반기에 냉동마늘 도입가격이 국산마늘의 30% 수준이었으나 후반기부터 70% 수준을 형성하여 가격차가 크게 축소됨으로써 수입업자들의 채산성이 맞지 않게 되었다.

또한 중국산 마늘과 국산마늘의 가격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한국내에서 수입 냉동마늘을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 요식업체 등에서 맛, 향, 원가관차원에서 중국산보다 국산마늘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중국산 냉동마늘 사용이 줄어들었다.

중국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볼 때 한국에 수출할 경우 최저가격제, 수출쿼타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수익이 많은 동남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수출시장을 전환하게 되었다.

<표4-5>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의 수입단가 상승

	1998	1999	2000	
			1-8월	9-12월
냉동마늘	0.49	0.41	0.37	0.69
초산조제마늘	0.43	0.36	0.33	0.67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 정정길 2002.11 p131 참조

당초 1차 협상에서 한국은 중국의 요구대로 TRQ¹⁸⁾ 물량에 대해 민간자율 수입을 수용하였다. 대부분 국가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는 민간자율수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입량에 대해 책임을 디디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수입쿼타 미소진 물량에 대해 국내 조입보다 제3국으로 직수출하는 세우게 되었다.

제 2 절 한·중간 교역관계 전망과 협력방안

중국의 WTO 가입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농산물 무역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가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비교우위품목인 쌀과 채소, 과일, 화훼, 축산물을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있다. 즉 중국은 종전의 곡물중심에서 최근 수요가 증가 하고 비교우위가 이는 채소, 과일, 축산 등 노동집약적인 품목으로 특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쌀, 채소, 과일, 축산물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매우 중요한 품목이 되고 있어 향후 3국간 경쟁과 무역나찰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중국 산동성에서 한국과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 채소류의 수출주산단지가 확대 조성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으로 농

18) TRQ: 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할당

산물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마늘분쟁과 같은 제2, 제3의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강화 대책, 차별화정책 등 나름의 노력을 하겠으나 중국산 농산물과의 가격차가 워낙 심해 농업보호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개별적인 노력으로는 점증하는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 또는 한·중·일 3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상호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무역마찰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3국의 농업, 농민이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한·중 농업부분 교류 협력증진

그 동안 한·중 양국은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금후 무역마찰의 사후적인 해결보다 사전적인 교류협력으로 양국 또는 한·중·일 3국이 상호보완적인 농업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이외의 농업과 경쟁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과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체, 동북아 식량비축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 나아가 동북아 FTA를 위한 기구 설립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 .한·중 2국간 무역마찰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질서있고 지속적인 교역관계 형성

한국의 농업은 금후 확대되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에 의해 가격폭락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SG나 SSG 발동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출국인 중국의 괴잉생산에 의한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쌍방간 피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상호 협조로 농산물의 질서있는 교역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2국간 수출입 급증에 의한 산업피해를 상호 예방하여 WTO 배소, 무역보복 등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부처간 및 민간무역업체간 무역분쟁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별로 생산, 수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실무자급 협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역 증가로 산업피해가 예상될 경우 2국간, 또는 당사국간 무역조정과 통상마찰을 예방할 수 있는 고위급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에서 수출을 자율규제할 수 있는 수출입업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¹⁹⁾

제 5 장 한·중 간의 농산물 무역증대방안

제 1 절 한·중 역내 농산물 교역 동향과 전망

중국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제3위의 수출 대상국이자 한국 농산물의 신흥시장 (emerging market)이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2000년 약 1억 2,0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2,000만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은 증가했지만 이들 품목이 대중 농산물 수출총액에

19) 김병률 · 정정길한 , " 중간 농산물 무역 마찰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1, pp.126-134.

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10대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2000년 약 8,000만 달러에서 2004년 1억 3,500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대중 농산물 수출총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10대 품목의 비중은 같은 기간 67.3%에서 62.1%로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출액도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상위 10대 수출 농산물은 대부분 가공 농산물이지만 밤과 난초 등 신선 농산물도 포함되어 있다. 가격이 높지만 고품질인 한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 이어 제2의 수입 대상국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연도별로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다. 대중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약 14억 6,000만 달러에서 2003년 23억 2,000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18억 달러로 줄었다. 이와 같이 변동 폭이 큰 이유는 수입액이 가장 많은 옥수수 수입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대중 옥수수 수입액은 2000년 6.6억 달러에서 2001년 약 3억 달러로 감소한 뒤 2003년 9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 다시 2.4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중국산 옥수수 수입이 크게 감소한 해에는 미국산과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밖에 쌀과 참깨, 밀, 콩깻묵 수입액도 불안정한 변동을 보이고 있다.

대중 수입 상위 10대 농산물 품목의 수입액과 대중 농산물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연도별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품목 수입액은 2000년 9억 3,700만 달러에서 2004년 6억 4,500만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대중 농산물 수입총액에 대한 비중도 64.3%에서 35.8%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다양한 중국산 농산물이 광범위하게 수입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대 수입 품목 구성도 비교적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2000년 10대 수입 품목 가운데 옥수수와 합판, 쌀, 참깨, 기타 채소 등 다섯 개 품목만 2004년 10대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농업 부문에서 무역협정의 체결 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 역내 교역 수준 (level of trade)이 아닌 교역의 증가 (growth in trade)를 분석²⁰⁾한 결과, 2004년간 한국의 동북아 역내 농산물 교역 증가율이 17.1%로 역외 농산물 교역 증가율 38.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산물 역내 수출 증가율은 10.4%로 역외 수출 증가율 69.3% 보다 크게 낮았으며 역내 수입 증가율도 20.6%호 역외 수입 증가율 35.8%보다 낮았다.

이는 한국의 농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동북아 역내 교역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역내 농산물 수출 비중은 역내 수입비중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역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 한국의 동북아 역내 및 역외 농산물 교역 증가율 2000-2004

구분	수출 증가율 (%)	수입 증가율 (%)	교역 증가율 (%)
역 내	10.4	20.6	17.1
역 외	69.3	35.8	38.8

주: 어명근, 정정길, 강혜정, 허주녕, “ 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차) ”, 2005,12 p34 표 참조 .

한편 중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액은 1995년 41억 3,000만 달러에서 2003년 51억 5,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농축산물은 34억 5,000만 달러에서 40억 8,000만 달러로 , 그리고 임산물은 6억 9,000만 달러에서 10억 7,000만 달러로 각각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쌀과 옥수수 등 곡물류와

20) 역내 교역수준 (level of trade) 이 아닌 교역의 증가 (growth in trade)가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좌우하며 역내 교역 증가율이 역외 교역 증가율보다 높아지면 결국 지역무역협정(RTA) 체결을 초래하게 된다는 Diao의 가설을 이용.

당근, 양배추,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등 채소류 등이다.

제 2 절 한·중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파급 효과 비교

무역협정 체결의 목적은 일차로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와 정치 외교적 효과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효과로서 양국 간 안보협정이나 군사동맹 등에 의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역협정은 양국 간 혹은 소수의 국가 간 협정이므로 WTO와 같은 다자간 협정에 비해 체결 과정이 간단하고 협정 내용도 당사국들의 관심 분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다자간 협정에 비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협정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즉시 또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간 나타나는 효과까지 예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역협정 발효 이후의 여러 가지변수 즉, 생산요소의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해야 하므로 동태적 접근방법에 의해 예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경제적 효과추정 방법은 대부분 정태적 모형에 의존하고 있어 파급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와 특정 산업 부문이나 품목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후생 수준(welfare)의 변화 또는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 변화로 나타낸다. 특정 부문 전체 또는 특정 품목별 영향은 산업별 생산이나 품목별 생산액의 변화, 그리고 무역수지의 변화로 예측된다. 그러나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예측하기에는 자료상 제약과 같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영향과 병행하여 주요 농산물 품목별 영향을 예측한 기존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GDP 등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추정된 무역협정 또는 한·중 FTA체결의 파급 효과는 대부분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에 의해 추정된 것이다. 또한 일부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한 연구 결과가 있으며 양자 간 잠재교역(Potential Bilateral Trade: PBT)개념에 의해 수출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한 결과도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한·중 FTA가 국별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2국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GDP증가율은 0.69%(커빙성 등 2005)부터 5.15%(이홍식 등 200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GDP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부문 시물레이션 결과 쌀 포함 여부 등 FTA체결 시나리오에 따라 14.438.9% 감소할 것으로 계측되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어명근 등 2004)²¹⁾

한편 한·중 2국가 역내 무역수지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자와 모형별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한국은 역내 무역수지가 3억 7,000만 달러 개선되거나 (쉬창원 등 2005) 48억-122억 달러 (정인교 2004)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도 FTA 체결시나리오에 따라 역내 무역수지가 57억 달러 개선되거나(정인교 2004) 악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역내 FTA²²⁾의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한국의 농산물 무역수지는 15억 8,000만 달러나 악화될 것으로 계측되었다 (어명근 등 2004).

이와 같이 연구자에 따라 추정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의 연도와 품목 및 부문 분류 기준이 서로 틀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인교 (2004)는 교역액 추정 범위가 너무 커서 지표로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역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박화되거나 개선되는 경우에도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농업생산과 농산물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어명근 등 2004)

21) 자세한 연구방법, 이용 자료, 추정결과는 어명근 등 (2004) 참조.

22)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

<표 5-2> 한·중 FTA 체결의 파급효과 계측 결과 비교

연구자	GDP 변화(%)		역내 무역수지 변화 (억 US 달러)		비교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쉬창원(2005)	2.9	3.83	3.7	-2.3	CGE모형, 모든산업 대상
어명근 등(2004)	-14.4 -38.9***		-\$15.8 (농업부문)		PBT개념 으로 계측
정인교등(2004)	1.294.73	0.031.05			CGE모형
정인교(2004)*			-47.7 -121.6	57.1 -32.7	CGE모형
커빙성 등(2005)**	0.69	0.27	-17.0	-12.7	CGE모형

주 : * 2국간 수출 증가액으로 무역수지 변화액을 산출하였음

** 세계 전체에 대한 무역수지 변화액임

*** 농업부문 시뮬레이션(KREI-ASMO)모형으로 추정된 농업
소득 변화임.

한편 무협저의 농산물 품목별 교역 전망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 전망과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 전망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체 출범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산농산물 수출과 농산물 수입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대중 수출액이나 대일 수입액이 한국의 전체 농산물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 아닌 가공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과 대일 수출의 변화 가능성을 현재의 교역 형태와 여건 등 현황을 참고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³⁾

23) 정인교(2005)에 의하면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곡물류 79억 달러를 포함하여 모두 152억 달러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61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91억 달러나 확대될 것으로 나타나 한·중 FTA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유

먼저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입 증가 가능성을 분석하기 전에 유념해야 할 것은 품목에 따라 중국 전체로는 순수입국이지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자주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중국은 대두를 최근 매년 2,000만 톤 이상 수입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약 8만톤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소맥이나 옥수수도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도 한국과 가까운 동북 3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어도 한국과 가까운 동북 3성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여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품목의 한·중 간 가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 쌀의 한·중간 도매시장 가격차는 약 6.1배로 나타났다. WTO에 양허하지 않은 유일한 품목인 쌀은 현재 5%의 저율과세가 부과되는 시장 접근물량(MMA)만 수입되고 있으며 2004년 당시 중국산 쌀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42.6%이다. 만일 경제 협력체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자유화될 경우 수입량이 급증하여 한국 농업의 근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금까지 중국산 농산물 수입은 관세보다는 동식물 검역과 쿼터 등 비관세 부문의 규제가 사실상 더 크게 작용하여 왔다. 만일 현행 동식물 방역법상 수입 규제가 지속될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신선 육류와 사과, 배, 복숭아 등 신선 과일류의 수입은 불가능하며 조제품 형태로만 수입될 수입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류 가운데 옥수수와 소맥은 할당관세(0%)가 적용되는 사료용이 시장 접근물량(TRQ)으로 수입되고 있어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의 급증 등과 같은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옥수수의 경우 지금까지 중국의 국국내 작황과 재고량 등 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중국의 수출

추하고 있다.

보조금액이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입량도 크게 변동하였기 때문에 향후 수입 전망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만일 중국이 국내 육류 수요 증가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 소비가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옥수수 수입량 증가보다 국제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중국산 옥수수와 소맥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각각 20.4%와 9.9%로 나타났다.

대두는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급률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으로는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 품목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물량은 5%의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TRQ)이며 수입 용도는 주로 콩나물 콩이다. 2004년 중국산 콩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5.9%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사료용이나 착유용 대두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중국 내 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2005년 당시 양허세율 487%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산 콩과의 도매가격 차이가 6.6배나 되는 중국산 대두 수입은 채유용과 사료용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여 국산 콩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팥도 현재 시장접근물량(TRQ) 위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쿼터 내 세율이 약 30%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2005년 당시 양허세율이 420%로 높아 관세 철폐 시 수입 급증이 예상된다. 2004년 중국산 팥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99.9%로 독보적이다. 메밀도 시장접근세율은 3%로 낮지만 2005년 양허세율이 256%로 높아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 메밀의 생산은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념채소류는 현행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냉동 또는 초산 조제 등 가공품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양허세율이 수입 금지 수준으로 높은 것은 물론 시장접근물량(TRQ)에 대한 관세도 30-50%로 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따라서 관세 철폐 시 가격 하락효과가 크게 나타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03년 현재 한·중 간 가격 차이가 고추는 10배가 넘고 마늘도 7배에 달해 관세 철폐 시 국산 고추와 마늘의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어 생산 농가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2004년 양념

채소류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고추 89.9%, 마늘 100%, 양파 79.9%, 파 100%, 생강 98.8%로 지배적이다.

배추와 무, 당근 등 신선 채소류는 관세율이 27-45%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운송비와 가공비 절감을 위해 절임류나 건조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특히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6-7분의 1에 불과한 배추는 최근 관세율이 20%에 불과한 김치 형태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관세 철폐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와 무 모두 2004년 수입 시장점유율이 99% 이상으로 높았으며 당근도 98%로 지배적이었다.

땅콩과 참깨도 관세율 40%로 지당접근물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중국산에 비해 국내산 가격이 4-5배 높아 230-630%인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 급증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2004년 당시 중국산 시장점유율은 땅콩이 96.8%, 참깨 34.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행 수입형태와 중국산 수입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동북아 지역 경제 통합으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표 5-3>에 정이된 바와 같이 쌀과 팥 등 곡물류와 대두, 참깨, 땅콩 등 유지종자,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배추, 무, 당근 등 채소류 등 대부분의 농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 육류 등 축산물과 신선 과일류는 동식물 검역상 규제가 지속되는 한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 증가 예상 품목에서 제외되었다.

<표 5-3> 주요 농산물의 중국산 수입 비중과 수입 형태
단위 : 천 톤, 백만 달러

품 목	총수입량 (수입총액)		중국산 비중 (%)		수입 형태
	1998	2004	1998	2004	
쌀	62(21.7)	209.3(82)	67.3	42.6	메현미(관세율 5%) 현대
옥수수	7.119(913.7)	8.387(1.438)	36.5	20.4	중국산은 사료용(할당세율 0%)과

					기타
소맥	4.696(664)	3.382(665)	0.4	9.9	중국산은 주로 사료용(할당세율 0%)
대두	1.413(379)	1.297(478)	1.1	5.9	중국산은 주로 대두 기타(세율 5%)
팥	18(6.2)	32.1(19.7)	99.9	99.9	중자용 외 기타(세율 30%)
고추	14(42.8)	66.1*(138.0)	81.6	89.9	냉동고추(세율 27%)와 혼합조미료(45%)
마늘	36(15.5)	56.2**(24)	99.9	100.0	냉동마늘(세율27%)과 기타(30%)
양파	13(3.2)	54.2**(12)	36.1	79.9	중국산은 신선 및 건조(세율 50%)
파	27(5.6)	29.9**(10)	97.3	100.0	건조파(세율 30%) 형태
생강	3(1.1)	11.4(6.5)	99.1	98.8	신선과 건조(세율 377.3%). 가격축소의혹
배추	5(2.8)	114.1*** (38.4)	99.3	99.0	절임(세율27%) 및 김치(20%) 형태
양배추	2(0.4)	11.7**(1.9)	96.5	95.7	건조(세율 54%) 및 홍작시 신선(27%)
상추	0.1(0.1)	1.2(1.0)	0	28.2	양상추 및 신선냉장(세율 45%)
시금치	-(-)	0.6(0.3)	0	97.5	냉동시금치(세율 27%)
무	11(0.7)	18**(1.4)	99.9	99.4	건조, 무말랭이(세율 30%)
당근	15(2.8)	83.2**(23.5)	62.7	98.0	신선냉장 및 건조(세율 30%)
낙화생	18(16.9)	34.3(24.3)	94.1	96.8	조제저장처리(세율 63.9%)
참깨	54(45.1)	79(81)	11.1	34.9	TRQ물량(세율 40%), 가격차 34배
들깨	12(6.1)	22.9(11.8)	100.0	100.0	가격차 2배
인삼	-(0.7)	0.2(5.7)	93.3	95.0	백삼정(세율 20%)과 홍삼(쿼터세율 20%)
오이	4(4)	18(8.5)	14.8	63.5	중국산은 일시저장(세율 30%) 증가
토마토	21(17)	39(29)	17.6	38.4	페이스트(세율 5%) 증가 추세
딸기	0.6(0.9)	4.3(5.2)	68.9	83.3	냉동(세율 30%) 및 조제저장 증가

사과	0.3(0.3)	2.5(2.3)	71.4	75.2	주스(세율 45%) 및 혼합주스(세율 54%)
감귤 (조제)	0.6(0.8)	2.9(2.1)	35.9	93.8	조제저장(세율 45%)은 중국산, 신선과일(주로 오렌지)은 미국산
감(건조)	0.1(0.1)	5.8(6.1)	100.0	100.0	건조감(세율 50%) 증가
복숭아 (통조림)	5(3.7)	5.9(5.4)	47.8	15.5	통조림(세율 50%) 증가

주 : *건고추 기준(신선 또는 냉동고추 환산비율은 정진욱(2003) 참조).

** 신선채소 기준(신선채소 환산비율은 정진욱(2003)참조)

*** 배추는 절임배추 기준.

자료 : 정진욱(2003). 농림부-농림축수산물입통계시스템

중국의 대한 수출 농산물은 수출 형태와 한국의 소비 수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국내 생산이 중단된 계절(주로 동절기)에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급 조절용 수입 품목이 있다. 둘째, 한국의 국내 생산이 구조적으로 부족하여 외국산을 수입하는 품목으로 한국의 국내산에 비해 품질이 낮고 수출국간 경합이 심한 품목들이 있다. 토마토, 사과, 배, 장미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셋째,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이른바 블루오션(blue ocean) 품목이 있다. 파프리카와 신선육 상태의 돼지고기, 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수급 보완용으로 수입하는 품목들은 일본의 국내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이 변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수출이 불안정하고 관세를 철폐해도 수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구조적으로 수입을 하는 농산물 가운데 가격경쟁력은 있으나 품질이 낮은 품목들 역시 관세 철폐의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수준이 낮은 데다 다른 수출국들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FTA 체결에 따라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신선 농산물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 경쟁력을 갖춘 파프리카와 배, 신선 돼지고기,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식물 검역이나 잔류농약, 육종권 문제, 로열티 문제 등으로 인해 수출 증가에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백합과 국화 등 화훼류와 배추, 양배추, 채소종자, 가지와 멜론 등도 한국의 신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토마토, 사과, 장미 등의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지만 다른 수출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관세 철폐 이후에도 수출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표고를 비롯한 기타 버섯류와 난초 등은 대한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 철폐 시 한국산과의 가격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별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오이와 딸기 등은 일본 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량이 변동하기 때문에 관세 철폐 이후에도 수출 증가 전망이 불투명하고 한국의 검역 당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 수출량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표 5-4> 품목별 대일 농산물 수출 유형과 향후 전망

품 목	수출유형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기타 장애요인	경쟁국유무	향후 전망
오 이	수급조절	다소 우위	근 접	훈증시 상품성 하락	중국산 염장오이	불안정
파프리카	구조적	다소 우위	근 접	잔류농약 검출	네덜란드	증가
토마토	구조적	우 위	근 접	잔류농약 검출	미 국 캐나다	약간 증가
딸 기	수급조절	우 위	낮음(냉동)	육종권 문제	미 국	불안정
사 과	구조적	다소 우위	낮 음	수출 물량 확보	호 주 미 국	약간 증가
배	구조적	다소 우위	낮음(저장성 우수)	-	-	증가
장 미	구조적	우 위	낮음(선별)	검역과 로열티	인 도 네덜란드	약간

						증가
돼지고기	구조적	우위(신선육)	유위(신선육)	구제역, 콜레라	미 국 텐 마 크 캐 나 다	증가 (검역문 제해결)
밤	구조적	다소 우위	우 위	-	중 국 이 태 리	증가

자료:어명근, “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 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3차년)”, 2005, 12 p44표 참고.

제 3 절 한·중 2국의 농산물 특화 실태

지역경제 통합은 시장의 확대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치열해진 국가 간 산업 간 경쟁에서 유리한 기업이나 산업은 성장하는 반면 경쟁력이 약한 부문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농업은 경쟁력이 낮아 크게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를 어느 정도 완화하고 상호 공생하기 위하여 농업 내부에서 특화를 통해 국제 분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한·중 2국의 산업 간 상호 연관성 분석 결과 농림수산물은 일본이 최대 시장이고 중국은 한국 시장에 대한 최대 공급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홍배 등 2002). 또한 농림수산업의 중간재 투입은 2국 모두 자국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고 최종수요도 자국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일 의존도에 비해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지역경제통합 출범 이후 농업생산의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역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중 2국간 별도의 농업협력을 통한 분업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경제협력체 출범 이후 역내 농업의 국제 분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별 농산물 품목별 특화 현황을 계측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OECD의 “무역수지 기여도 (Contribution to the Trade Balance; CTB) □□지수를 이용

하여 한 · 중 2국의 농산물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를 계측하였다. CTB는 다음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²⁴⁾

$$CTBi = \frac{(Xi - Mi) - (X - M)(Xi + Mi)/(X + M)}{(X + M)}$$

여기서 Xi는 i품목의 수출액, Mi는 i품목의 수입액, 그리고 X와 M은 각각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이다.

CTB는 국제 무역의 흐름을 이용하여 경제의 구조적 강점과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지표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고려하며 특정 품목의 무역수지를 전체 무역수지와 비교하므로 경기변동에 의한 편차를 제거할 수 있다. CTB는 전체 산업의 실적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품목이 전체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을 냈는지를 나타내므로 사실상 “현시비교우위”의 지표로 사용된다. 만일 어떤 품목에 비교우위나 비교 열위가 없다면 일국의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이건 적자이건 각 산업별 비중에 따라 전 산업에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다.

CTB지수는 i품목의 실제 무역수지 (Xi - Mi)와 이론적 무역수지 (전체 무역수지에 i품목의 교역액 비중을 곱한 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지수의 값이 0보다 크면 i품목은 구조적으로 흑자(structural surplus)이고 0보다 작으면 구조적으로 적자(structural deficit)임을 의미한다. 구조적 흑자란 국가 전체의 무역수지 흑자 여부에 관계없이 i산업의 무역수지가 평균보다 유리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CTB지수는 품목 그룹 또는 특정 산업에 대하여 합산하여 산업 별구조적 비교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 산업별 비교우위 계측을 위해 종상 전체 교역액이나 GDP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다. 품목별 CTB지수를 전 품목에 대하여 합하면 0이 된다.

<표 5-5>는 2004년 교역 자료에 의해 산출한 한 · 중 농산물 품목별 CTB 지수이다. HS-6단위까지 세분된 교역 자료에 의해 계측한 지수를

24) 고일동(2004, 71-12)과 OECD(2003, 150)참조.

HS-2단위별로 합산하여 나타낸 값이다. CTB 지수 계측 결과 한국은 23개 품목 가운데 구조적 흑자 품목이 12개 , 구조적 적자 품목이 11개였으며 중국은 각각 14개와 9개로 나타났다. 일본은 구조적 흑자 품목이 10개 , 구조적 적자 품목이 13개로 나타났지만 구조적 흑자 품목의 CTB지수는 대부분 매우 작았다.

CTB지수가 0.5 이상인 품목을 비교우위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한 수출 특화 품목으로 간주할 경우 중국의 특화 품목은 육류(02류), 동물성 생산품(05류)과 식용채소(07류), 식용과일(08류), 커피와 차(09류), 육어류 조제품(16류), 곡물조제품(19류),채소 및 과일 조제품(20류), 그리고 음료와 술(22류) 등 7개였다. 일본이 특화 품목은 곡물 조제품(19류)과 소스 등 식료조제품(21류)의 2개에 불과하였다.

국별 경합 관계를 볼 때 곡물조제품은 한·중 2국이 모두 수출 특화된 경합 품목이고 육어류 조제품과 채소 및 과일조제품, 음료와 술은 한국과 중국 간 수출 경합 품목이다. 또한 소스 등 식료조제품은 한국과 일본간 수출 경합 품목이지만 중국과 일본 간에는 수출 경합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에 있어 구조적 적자가 크고 수입 특화된 품목은 낙농품(04류)과 곡물류(10류)와 유지종자(12류), 동식물성 유지(15류), 박류(23류) 등 5개이며 한국의 수입 특화 품목은 육류(02류)와 낙농품(04류), 곡물류(10류), 유지종자(12류), 동식물성 유지 (15류), 그리고 박류(23류) 등 6개였다.

곡물은 한·중 2국 모두 수입 특화된 수입 경합 품목이며 낙농품과 유지종자, 동식물성 유지, 박류는 한·중 간 수입 경합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표 5-5> 한·중 농산물 무역수지기여도 (CTB)지수, 2004

구 분	한 국	중 국
01(산동물 : 소, 돼지, 닭 등)	-0.1054	0.3225
02(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3.1480	0.7307
04(낙농품:치즈, 버터, 계란,유란,꿀 등)	-0.6728	-0.5192
05(동물성 생산품 : 동물털 뼈 등)	0.0725	2.0997
06(산 수목 : 뿌리, 종균 , 절화 등)	0.5611	0.0464
07(식용채소류)	0.3766	5.8916
08(식용과실류)	0.0063	1.1005
09(커피, 차, 향신료 등)	-0.3168	3.3572
10(곡물류)	-7.3525	-3.7546
11(곡분, 전분, 맥아 등)	-0.1219	-0.0168
12(채유용 종자, 과실류 등)	-1.9228	-16.3360
13(검, 수지, 진액 등)	0.4079	0.0495
14(식물성 섬유류 : 길대, 꼴풀 등)	-0.0341	-0.1041
15(동식물성 유지류 : 라드, 마가린 등)	-1.3998	-10.1275
16(육어류 등 조제품 :소시지 등)	2.2567	9.7912
17(당류와 설탕과자)	0.9144	-0.1732
18(코코아 및 과실조제품)	-0.0329	-0.1604
19(곡물조제품)	4.6630	1.2992
20(채소 및 과실조제품)	0.6652	5.9853
21(소스, 베이킹파우더 등 식료조제품)	2.4963	0.4798
22(음료, 술 등 조제품)	2.1959	1.4115
23(식품공업잔해물, 박류 등)	-2.0766	-1.0543
24 (담배 및 대용품)	2.5675	0.6812

농산물 (HS 6단위)전체에 대한 비교우위 자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종합무역정보무역통계(www.kita.net)

제 4 절 농업의 역내 분업 가능성과 전망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산 농산물이 한국시장으로 대거 수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산 농산물도 상당 부분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고소득 소비자를 고품질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과 일본 농업에 기회

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에서 산출한 한·중 2국의 CTB 지수를 토대로 농산물 역내분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국간 농산물 교역은 상호 경합적인 관계와 함께 보완 관계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중 2국간 농산물 분업에서 중국은 특화 가능 품목이 일부 있지만 일본은 특화 및 수출 가능한 품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중 2국간 수평적 분업(horizontal division of labor)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와 틈새시장(niche market)개척을 통해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고품질 농산물 또는 기능성 농산물을 개발할 경우 제한된 형태로 나만 분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산품에 비해 생산 공정이 단순한 농산물의 특정 품목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산물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직적 분업의 형태는 한국산 밤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탈각한 뒤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와 일부 채소류 종자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재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불과하다.

중국과 한국간 상호 보완 관계를 보이는 농산물 가운데 중국이 수출 특화되고 한국이 수입 특화된 품목은 육류와 동물성 생선, 식용채소와 식용 과일, 커피와 차, 채소 및 과일조제품 등 6개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이 수입 특화되고 한국이 수출 특화된 품목은 산수목과 절화, 당류 및 설탕과자, 소스 등 식료조제품 등 3개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특화 가능 품목에 육류, 채소 및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이 포함된 반면 한국 특화 품목은 산수목과 절화 외에는 국내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거의 없는 가공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선 농산물을 보다 세분하여 한·중 2국간 상호 보완 및 경합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경우에도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수출 가능한 품목은 없으며 한국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CTB 지수상 구조적 적자로 판명된 곡물류 가운데 쌀과 옥수수 등을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종자인 대두와 참깨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한·중·일 3국 간 보완 및 경합 품목

국 별	보완관계	경합관계	
		수출 경합	수입 경합
한 · 중	쌀, 옥수수, 대두, 참깨, 양배추,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돼지고기, 양배추	밀, 옥수수, 대두, 쇠고기, 닭고기
한 · 일	양배추, 감귤, 당근, 오이,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돼지고기	사과, 배	쌀, 밀, 옥수수, 대두, 참깨, 오렌지, 생강, 당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중 · 일	쌀 옥수수, 사과, 참깨, 당근, 양배추, 마늘 생강, 양파, 고추, 돼지고기, 닭고기	배, 사과	밀, 옥수수, 대두, 유채, 닭고기

주 : 굵은 글씨의 품목은 보완 관계인 동시에 경합관계임.

자료 : 어명근 외 (2004, 21)의 <표 2-7>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음

관세가 철폐되고 동식물 검역상 수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현재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신선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경제통합 또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 부문의 역내 국제 분업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내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이 역내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농산물 교역에서 경쟁이 격화될 경우 국제 분업보다는 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생산 기반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제협력체 창설에 따른 무역자유화는 역내 농업생산의 분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자유화는 필연적으로

경쟁을 유발하고 약육강식의 경쟁 원리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부문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체 추진 과정에서 농업생산의 국제 분업을 통해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내 농업협력에 더욱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경제 논리에 따른 단순한 무역자유화는 한국 농업은 물론 중국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²⁵⁾

제 6 장 요약 및 결 론

가. WTO 농업협상

한국은 중국이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이외에 품질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의 소비자 역시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채소, 과일, 축산물의 수출이 신장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를 위한 상당한 기술, 자본이 필요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곡물수입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WTO 농업협상에서 수출국보다는 수입국의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곡물 수입국이지만 관세는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관세인하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농산물 수출대국이므로 수출증대를 위해 각국의 무역장벽과 보조금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콩, 유채, 콩기름, 유채씨, 밀, 면화, 옥수수 등은 중국 국내가격이 하락하여 피해가 예상된다고 중국이 주장한 것에

25) 어떤근, 정정길, 강해정, 허주녕, “동북아 경제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3차년)” 2005.12. P31-52 참조.

대해 중국정부의 보호장치가 무엇인지 질문 했다.

중국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했다.

한국 측은 중국이 WTO가입을 위한 미국, EU 등과의 양자협상에서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시장개방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던 바실제로 영향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가 인하되고 TRQ 물량을 확대 했지만 실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는 북미의 가뭄으로 국제시장가격이 상승하여 중국 내에서 미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

나. 한·중간 무역 및 통상마찰 문제

중국은 길림성의 경우 농산물의 파종과 생산, 국제시장, 국내시장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 전파하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무역마찰예방시스템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인가 등에 대해 질문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의 업무내용을 소개 했다

또한 한국은 대일 시설채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일 수출농산물의 안정성검사와 수출검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수출업체를 선정하고 수출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출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무역마찰예방시스템이란 정부의 실무자급에서 국가간 정보 DB 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수출자율규제는 국제규범상 어렵기 때문에 민간수출업자협의회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수출을 자율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무역마찰이 예상된다면 고위급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산 채소류의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중국, 한국, 일본 등 3개국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자, 중국측은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대해 질문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수출입국간의 적절한 협의체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여 사전에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수출입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 했다.

중국은 한국이 2004년 쌀시장개방 문제와 중국으로부터 쌀을 수입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했다.

한국은 2004년 관세화유예 여부에 대해 어느 방식이 최선인지 연구중에 있으며, 2004년까지 쌀수입이 20만 4천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쌀협상에서 중국과의 어려운 협상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측은 선진국의 동식물검역, 기술장벽 등 높은 비관세장벽과 차별적인 기준적용이 중국산 농산물수출에 가장 큰 장애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선진국의 비관세장벽도 문제이나 중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나쁜 것도 수출장애의 원인이라고 반박 했다.

한국은 중국이 외국의 기술장벽 완화와 관련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 했다 .

기술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이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으며 투명성, 배타성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각국의 경제발전의 차이가 있어 기술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개도국들은 피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국제무역에서 기술장벽의 사용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중간 , 일·중간 , 중·유럽간 기술장벽을 둘러싼 무역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장벽은 단순히 국내 산업보호정책으로 사용하기 보다 호혜적인 원칙

(내국민대우)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FTA 추진상황과 국내대책에 관하여 질문 했다.

한국 측은 FTA 추진은 대세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감하고 취약한 농산물은 가급적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 했다.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 차원에서 한·중간 FTA 등 동북아 농업협력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4차 한·중 국제세미나 주제도 이와 관련하여 설정하고자 했다.

다. 양국의 농업과 농촌 문제

중국은 한국의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85%로서 중국보다 사정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하면서 한국의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문제가 한국에서도 심각하며, 점점 악화되어 10년후 7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책수단으로서 한국은 농어민후계자 육성, 선도농 육성 등이 있으나 큰 효과가 없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노령화의 진행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도농간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우수한 농촌노동력이 필요하나 중국 농촌의 노동력은 매우 질이 낮다고 하며 농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동북 3성에서는 농가소득의 저하현상이 심각한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소득작목으로의 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중앙에서는 중국전체의 식량안보를 확보한다는 정책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음. 이러한 경우 소득상실 분배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한국 측은 중국이 농촌소득 증대를 위해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도시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농촌인구를 흡수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 된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호적제를 통한 거주이전제한으로 현재는 자유로운 이동이 어렵지만, 경제발전에 따라 도농간의 자원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 한다.

한국의 농가부채의 원인별 구성요소는 어떤가에 대해 중국이 질문 했다.

한국의 농가부채는 생산성부채와 소비성부채로 대별 한다.

생산성부채는 농가계 구입, 고가의 원예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정책금융과 사금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시장개방 이후 농산물가격이 하락한데에도 일부 농가부채의 원인이 있다.

소비성부채는 농가들이 도시에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자녀교육비와 임대료, 생활비 등에서 발생 한다.

중국은 한국의 농가인구가 10% 이하로 하락했는데 이농의 과정에서 농업인구, 영농인력정책의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해 질문 했다.

1970년대 이후 공업화, 도시화로 이농이 촉진 되었으나, 최근에는 도농간의 삶의 질적인 차이, 예컨대 교육, 문화, 복지 등 질적인 차이와 소득수준의 차이로 이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이농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인력정책은 농업후계자, 전업농 육성으로 비교적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수준이 뛰어난 농민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령화, 젊은 층 이노에 따라 초등학교 폐교 등 이농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라. 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적절히 감안하여 농촌지역의 토지관련 법안을 내년

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다.

중국은 농촌지역의 유희 노동력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의 관습이 남아 있어 중앙정부의 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조정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 했다.

중국의 세금개혁안에서는 도급면적이 많으면 세금도 많지만, 세금고 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농가소득의 8.4%를 초과하지는 않는다. 26)

26) 歷爲民, “ 한·중 양국의 농산물무역: 현황과 전망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연구소, 2002.11, pp.183-187.

참 고 문 헌

- 김병률·정정길, 「 한·중간 농산물 무역 마찰 : 원인, 전망 및 대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1.
- 김병률, 「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과수·화훼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 2001.
- 김정호, 「 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증장기비전 」, 2003.
- 권오복·정정길, 「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12.
- 대한민국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2.
- 어명근, 「 자세한 연구방법 」, 2004
- 어명근·정정길·강혜정·허주녕, 「 동북아 경제 협력체 출범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동북아경제력체 구상과 농업부문의 과제 (3차) 」, 2005.12.
- 이재욱, 「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한·중 농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 방안 연구 」, 2002.
- 이재욱·서진교, 「 WTO/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 및 상호협력방안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02.11.
- 정진욱, 「 농림축수산물수출입통계시스템 」, 농림부, 2003.

전창곤, 「 중국의 농산물 유통체계에 관한 연구 」, 2002.

최세균·박기환 “ 한·중 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 2001.

한국무역협회, “ 종합무역정보무역통계 ”, 2004.

[Internet Web Site]

농림부 (<http://www.maf.go.kr/>)

대한민국 관세청 (<http://customs.go.kr>)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go.kr>)

세계무역기구(WTO) (<http://www.wto.org>)

세계무역통계DB (<http://www.kita.net>)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중국상무부 (<http://www.mofcom.gvo.cn>)

중국대사관 (<http://kr2.mofcom.gov.cn>)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한국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무역학과	학 번	20057904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이 흔	한문: 李 欣	영문: Li Xin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37-10 301호				
연락처	E-MAIL : lixin2144@hotmail.com				
논문제목	한글 : WTO 체제하의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증대방안				
	영문 :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Promotion Plans of Farm Products Trad between Korea and China under WTO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07년 2월 일

저작자: 이 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